

석사학위논문

프랑스 아방가르드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 20세기 회화 작품을 중심으로 -

2013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이 지 영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민경

프랑스 아방가르드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 20세기 회화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rt Make-up Works applying the characteristics
of avant-garde in France

- Focused on paintings of the twentieth century -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이 지 영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민경

프랑스 아방가르드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 20세기 회화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rt Make-up Works applying the characteristics
of avant-garde in France

- Focused on a painting of the twentieth century -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이 지 영

이지영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프랑스 아방가르드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 20세기 회화 작품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이 지 영

21세기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터넷에 기반을 둔 닷컴 기업들의 성장 및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문화전반에 걸쳐 형식이나 전통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유분방한 표현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개개인의 의견과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미적 수준을 끌어올려 메이크업에도 반영되어 창의성을 추구하는 아트메이크업 장르를 형성하게 되었다.

물질적 재료 및 표현기법으로 호소하는 아트메이크업은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서 본능적인 인간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여 표현하는 시각적 예술이다. 21세기의 현대 아트메이크업은 급성장하는 문화산업의 영향으로 기존의 정형화된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작품을 통한 작가의 내면세계를 무언의 메시지로 전달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하여 복잡해진 인간의 내면가치를 표출하는 수단이 되었다. 대중예술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스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은 아트메이크업에 필요한 재료의 영역 확대 및 표현 방법을 전문화시켰다. 이처럼 급속히 진보하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미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 실정이다.

아방가르드는 ‘깊숙한 곳에 자리한 욕망, 미지의 세계, 이제 막 모습을 드

러내기 시작한 갈등, 우리시대의 감춰진 생각'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옛 것에서 벗어나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현대 아트메이크업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례적인 예술방식에서 벗어나 어떠한 제약과 형식 따위에도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기법과 창의적 발상이 난무하던 20세기의 회화에 주안점을 두어 아방가르드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아트메이크업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트메이크업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표현양식을 다양하게 하여 아트메이크업의 영역을 기존보다 확장시키는데 의의를 두었다.

연구의 범위로는 아트메이크업의 유형 및 특성, 표현기법을 각각 세 가지와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서술하였고, 아방가르드의 발생지이자 예술의 근원지인 '프랑스'로 범주화하여 아방가르드의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던 20세기 회화 범위 안의 '야수주의, 입체주의, 파리주의, 추상미술, 초현실주의, 신사실주의'의 총 6가지 운동 유형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아트메이크업과 아방가르드를 고찰하고, 프랑스의 20세기 회화에 나타난 아방가르드의 특성을 접목하여 작품으로 제시한 아트메이크업 및 패션, 뷰티분야의 선행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본 논문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6가지 유형의 대표작품들을 분석하여 나타난 아방가르드의 기법과 다양한 특성을 응용한 총 8점의 독창적인 아트메이크업을 제작하였다.

이론적 고찰과 작품제작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콜라주 기법으로 제작한 야수파·입체파의 작품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은 2차원적인 인체 위에 다양한 오브제를 오려 붙임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3차원의 입체적인 시각 효과를 주었다. 이렇듯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간단한 소재만으로 표현 영역이 무한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개인적인 경험과 종교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린 파리파 마르크 샤갈의 작품 속 비현실적인 이미지들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은 원형의 틀 안에서 그의 어린 시절 마을과 뒤섞여 새로운 이미지로 나타났다.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은 현실 세계와의 만남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미지를 분리하거나 연결시켜

감상자들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그 이상의 주관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장 뒤뷔페의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를루프를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은 정형화된 4가지 색상들과 텍스트 형상만으로 그의 반문화적인 예술적 성향을 표현할 수 있었고, 자유로운 공간 및 새로운 형식으로 선명한 느낌의 앵포르멜적 아트메이크업을 제작할 수 있었다. 또한, 형태에 대해 연구자가 가지고 있던 고정 관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초현실주의 르네 마그리트 작품에서 나타난 더페이즈망 기법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은 두 가지 형태가 보이는 시각적 착시를 유발한 작품으로 입의 본래 고유성을 잃지 않은 채 눈과 융화시켜 겹쳐놓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더페이즈망 기법은 인체에 변화를 적용해 전혀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시키며, 기발함과 독특함을 갖춘 제 4차원적인 초현실주의 작품세계를 창조시킨다는 것을 알았다.

다섯째, 신사실주의의 대표작가 이브 클라인의 작품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에서는 붓이 아닌 생명력이 있는 신체의 일부분을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인 상상적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손의 질감 및 형상을 즉흥적으로 빠르고 용이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관념적인 표현형식, 표현도구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인간 행위를 아트메이크업의 범주에 확대시키고 새로운 표현성을 제시해주었다.

이처럼 20세기 회화 유형의 색깔이 잘 묻어난 작품을 응용하여 아트메이크업을 제작해 본 결과, 관념적 개념을 벗어나 사고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표현성을 탈피함으로써 독창적인 작품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다양한 기법, 재료 및 도구의 사용으로 표현 가능성을 확장시켜 새로운 디자인의 아트메이크업으로 재탄생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추후 연구자들에게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또 다른 회화를 응용하여 보다 다양한 방식과 기법을 적용하여 이색적이고 기발한 디자인의 아트메이크업을 창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어】아트메이크업, 야수주의, 입체주의, 파리주의, 앵포르멜, 초현실주의, 신사실주의, 콜라주 기법, 더페이즈망 기법, 비현실적인 이미지들, 손의 질감 및 형상, 새로운 디자인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아트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	5
1. 아트메이크업(Art Make-up)	5
1) 아트메이크업의 개념	5
2) 아트메이크업의 유형 및 특성	6
(1)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6
(2) 판타지 메이크업(Fantasy Make-up)	9
(3)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10
3) 아트메이크업의 표현기법	13
(1) 회화적 기법(Painting Technique)	13
(2) 콜라주 기법(Collage Technique)	15
(3) 에어브러시 기법(Airbrush Technique)	16
(4) 스텐실 기법(Stencil Technique)	17
(5) 조명기법(Light Technique)	19
제 2 절 프랑스의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의 이론적 고찰	20
1. 아방가르드 예술(Avant-garde Art)	20
1) 아방가르드 예술의 개념	20
2) 아방가르드 예술의 등장배경	21

2. 프랑스의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	22
1) 프랑스의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경향	22
2) 프랑스의 20세기 회화경향	23
(1) 회화운동 유형 및 특성	23
① 야수주의(Fauvism)	24
② 입체주의(Cubism)	26
③ 파리주의(Ecole do Paris)	29
④ 추상미술(Abstractionism)	31
⑤ 초현실주의(Surrealism)	36
⑥ 신사실주의(Nouveau Realism)	40
제 3 절 프랑스의 20세기 회화를 응용한 작품 사례분석	44
1. 아트메이크업에 적용된 사례	44
2. 패션분야에 적용된 사례	48
3. 뷰티분야에 적용된 사례	52
제 3 장 작품제작	55
제 1 절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55
제 2 절 작품제작	57
1. 작품 I 꿈속의 폴리네시아	57
2. 작품-Ⅱ 왕의 여자	60
3. 작품-Ⅲ 향	63
4. 작품-Ⅳ 무사	66
5. 작품-V 꿈속의 마을풍경	69
6. 작품-VI 우를루프	72
7. 작품-VII 외눈박이의 사랑	75
8. 작품-VIII 모노크롬 블루	78

제 4 장 결론 및 제언	81
---------------------	----

【참고문헌】	84
--------------	----

ABSTRACT	91
----------------	----

【 표 목 차 】

[표 1] 프랑스의 20세기 회화의 유형	43
[표 2] 작품 계획표	56
[표 3] 응용 회화 I	57
[표 4] 작품 내용 I	58
[표 5] 응용 회화 II	60
[표 6] 작품 내용 II	61
[표 7] 응용 회화 III	63
[표 8] 작품 내용 III	64
[표 9] 응용 회화 IV	66
[표 10] 작품 내용 IV	67
[표 11] 응용 회화 V	69
[표 12] 작품 내용 V	70
[표 13] 응용 회화 VI	72
[표 14] 작품 내용 VI	73
[표 15] 응용 회화 VII	75
[표 16] 작품 내용 VII	76
[표 17] 응용 회화 VIII	78
[표 18] 작품 내용 VIII	79

【 그림 목 차 】

〈그림 1〉 페이스페인팅 1	8
〈그림 2〉 페이스페인팅 2	8
〈그림 3〉 페이스페인팅 3	8
〈그림 4〉 페이스페인팅 4	8
〈그림 5〉 판타지 메이크업 1	10
〈그림 6〉 판타지 메이크업 2	10
〈그림 7〉 바디페인팅 1	12
〈그림 8〉 바디페인팅 2	12
〈그림 9〉 바디페인팅 3	12
〈그림 10〉 바디페인팅 4	12
〈그림 11〉 회화적 페인팅 기법 1	14
〈그림 12〉 회화적 페인팅 기법 2	14
〈그림 13〉 액션 페인팅 기법 3	14
〈그림 14〉 디지털 페인팅 기법 4	14
〈그림 15〉 콜라주 기법 1	15
〈그림 16〉 콜라주 기법 2	15
〈그림 17〉 콜라주 기법 3	16
〈그림 18〉 콜라주 기법 4	16
〈그림 19〉 에어브러시 기법 1	16
〈그림 20〉 에어브러시 기법 2	16
〈그림 21〉 스텐실 기법 1	18
〈그림 22〉 스텐실 기법 2	18
〈그림 23〉 UV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 기법	18
〈그림 24〉 일루미네이션 기법	18
〈그림 25〉 숲속의 누드(1908)	28
〈그림 26〉 칸바일러(1910)	28
〈그림 27〉 기타(1913)	28

〈그림 28〉 구성 A(1920)	28
〈그림 29〉 노랑 빨강 파랑(1925)	34
〈그림 30〉 푸른 기둥들(1952)	34
〈그림 31〉 급격한 부활(1950)	34
〈그림 32〉 길(1964)	34
〈그림 33〉 그녀의 엉덩이는 달아올랐다(1919)	38
〈그림 34〉 자화상(1958)	38
〈그림 35〉 여름철의 기분전환(1934)	38
〈그림 36〉 도시의 전경(1935-1936)	38
〈그림 37〉 신부의 의상(1926)	39
〈그림 38〉 행복한 눈물(1964)	39
〈그림 39〉 폴리네시아 바다(1946)	45
〈그림 40〉 절마(1905)	45
〈그림 41〉 천일야화 중 하룻밤(1950)	45
〈그림 42〉 서커스(1947)	45
〈그림 43〉 작품사례 1	46
〈그림 44〉 작품사례 2	46
〈그림 45〉 초상화(1966)	47
〈그림 46〉 작품사례 3	47
〈그림 47〉 작품사례 4	47
〈그림 48〉 음악(1939)	48
〈그림 49〉 작품사례 1	48
〈그림 50〉 하얀 십자가(1938)	50
〈그림 51〉 작품 사례 2	50
〈그림 52〉 인간의 조건 I (1935)	50
〈그림 53〉 작품사례 3	50
〈그림 54〉 작품사례 4	51
〈그림 55〉 작품사례 5	51
〈그림 56〉 작품사례 6	51

〈그림 57〉 작품사례 7	51
〈그림 58〉 잘못된 거울(1935)	52
〈그림 59〉 작품사례 8	52
〈그림 60〉 세 개의 창문 습작(1913)	53
〈그림 61〉 작품사례 1	53
〈그림 62〉 시간의 눈(1949)	53
〈그림 63〉 작품사례 2	53
〈그림 64〉 폴리네시아 바다(1946)	57
〈그림 65〉 왕의 눈물(1952)	60
〈그림 66〉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1911)	63
〈그림 67〉 게르니카(1937)	66
〈그림 68〉 나와 마을(1911)	69
〈그림 69〉 앉아있는 남자가 있는 풍경(1974)	72
〈그림 70〉 잘못된 거울(1935)	75
〈그림 71〉 인체계측(1960)	7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인들은 각종 정보매체와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하고 복잡한 사고를 갖게 되었다. 기존의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던 상반된 개념들을 일상의 공간에 함께 두려는 성향을 발휘하고, 보다 개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취향을 본격화시켜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성향은 일상생활에서 단순한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욕망과 참신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 자체인 현대의 아트메이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아트메이크업은 신체보호, 종교적 욕구 충족, 사회적 지위 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오늘날 다양한 문화 영역 속에서 보다 개성적이고 독창적이며 어떤 규칙에도 얽매이지 않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나타난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등장한 아방가르드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확산된 새로운 미술운동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걸쳐 정치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예술성을 띄는 독립적인 아방가르드의 개념으로 재탄생 되었다.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은 19세기 전반의 타성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아방가르드에서 전환을 시도하며 자유분방하다 못해 난해하고 생소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아트메이크업과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은 시각적인 표현예술로서의 새로움과 극단주의를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으며, 오늘날 문화예술의 새로운 이슈로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회화’에서 엄청난 변화와 실험적인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새로운 방식만을 수용하여 작가의 독특한 정신세계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20세기 회화의 특성은 아트메이크업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고정관념에 익숙한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창의적인 발상으로 전환시켜 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20세기 회화는 총 6가지 운동으로 나눌 수 있

다. 각각의 회화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작가 ‘앙리 마티스, 파블로 피카소, 마르크 샤갈, 장 뒤뷔페, 르네 마그리트, 이브 클라인’의 작품들에는 다양한 기법 및 도구들을 사용하여 참신한 상상력 혹은 본능에 충실한 그들만의 세계가 담겨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패션디자이너 작품 및 패션쇼 등의 패션을 분석하여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의 특성을 연구한 논문이나 20세기 회화의 기법 및 작품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작품제작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프랑스의 20세기 회화의 특성을 아트메이크업에 접목하여 작품제작을 목적으로 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회화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과거의 틀을 깨고, 당시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양식의 아방가르드 특성을 프랑스의 20세기 회화 작품에서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응용하여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아트메이크업이 새롭게 인식되고, 예술적 차원의 창작 표현 방법으로 아트메이크업의 디자인 영역의 확대 및 조형예술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아방가르드의 예술적 특성을 20세기 프랑스 회화 ‘야수주의, 입체주의, 파리주의, 추상미술, 초현실주의, 신사실주의’ 6가지 유형에 입각하여 각각의 예술운동을 주도한 작가들의 대표적인 작품들 중에서 그 시대의 아방가르드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들을 응용하여 아트메이크업을 제작하였다. 이는 새로운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을 제작하기 위한 연구로서 ‘강렬한 색채와 장식적 모티프를 응용하여 콜라주 기법으로 제작한 야수파의 작가 앙리 마티스 작품 2점, 입방체를 응용하여 기하학적인 형태로 사물을 표현한 콜라주 기법의 창시자이자 입체파 작가인 피카소의 작품 2점, 화려한 색채를 이용하여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파리파 작가, 샤갈의 작품 1점, 앵포르멜의 반문화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 뒤뷔페의 내면세계를 표출한 작품 1점 그리고 더페이즈망의 이질적인 요소의 낮익은 사물들을 이용하여 전혀 생소하게 표현한 초현실주의 작가, 에른스트의 작품 1점, 마지막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만을 수용하여 이채롭고 독특하게 표현한 신사실주의 작가, 클라인의 작품 1점의 작가의 개성이 강한 총 8점의 작품들로 범위를 제한하여 아방가르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구성은 총 4장으로 되어있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및 국내 문헌을 통하여 그 내용을 연구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아트메이크업의 개념과 유형 및 특성, 표현기법 그리고 아방가르드의 개념 및 등장배경을 고찰하고, 프랑스의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 경향과 회화 경향을 살펴본 후, 20세기 회화를 6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예술 운동의 배경 및 작가의 특성을 순차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20세기 회화 운동인 “야수주의, 입체주의, 파리주의, 추상미술, 초현실주의, 신사실주의”의 각각의 특성을 접목한 선행사례를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작품계획표를 토대로 아트메이크업에 응용할 회화 작품들을 제시하여 선정한 이유 및 제작 방법을 설명하였고, 총 8점의 아트메이크업을

제작하여 작품 내용과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결론 및 본 연구의 향후 과제에 대해 제언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아트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

1. 아트메이크업(Art Make-up)

1) 아트메이크업의 개념

예술(Art)이란 예술가에게서 비롯되는 개성을 중시하며, 독창성을 근본으로 한다. 예술가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나 혹은 그 시간과 공간에서 단, 한 번의 연주로 뽑어내는 작품의 아우라에 의해 창조의 주체자로 우위를 차지해왔다. 아트메이크업 또한 예술성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으로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생각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갖추어져 외향적인 미적효과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대중에게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미용학 사전에서는 ‘얼굴 혹은 신체를 바탕으로 각양각색의 그림, 형태, 장식 등을 이용하여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주제를 표현하거나 창의적으로 이미지화하여 메이크업을 예술적 경지로 올리는 작업의 분야이다.’¹⁾ 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트메이크업은 표현에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신체를 형상화하는 실험적인 조형예술의 한 분야임과 동시에 Art와 Beauty가 결합된 종합적인 예술이며, 메이크업 자체만으로도 창조적인 예술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아트 메이크업은 단순히 얼굴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체로 확대되어 의복의 대체 개념으로 활용 되고 있다.

오늘날 아트메이크업은 새로운 시점에서 그 시대를 반영하는 내적 의미와 외적 형태까지 창조해야 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나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현대의 아트메이크업은 20세기 후반에 영향을 준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공존과 혼합을 통해

1) 한국미용학회(2003), 『미용학사전』, 서울 : 신광출판사, p.573.

기존의 스타일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다채롭게 융화하여 새로운 스타일로 표현하고 있다.²⁾ 현대 예술을 대변하는 영화, 연극, 광고, 패션쇼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접할 수 있으며, 페이스페인팅을 비롯해 판타지 메이크업, 바디페인팅 등 작가의 상상력이나 기술력에 따라 다양한 신체 예술의 형태로 실험성이 강한 퍼포먼스로 표현하는 무대예술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일회성에 그치던 것에서 벗어나 현재는 대중매체와 결합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며, 나아가 상업적인 측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아트 메이크업은 종합예술로써 부족함이 없으며, 독자적인 예술의 한 분야로 우리의 삶 전반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2) 아트메이크업의 유형 및 특성

메이크업은 크게 활용 목적이나 기대 효과를 기준으로 뷰티 메이크업(Beauty Make-up), 성격분장(Character Make-up), 아트메이크업³⁾으로 나눌 수 있는데 표현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며 창조적인 예술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아트메이크업은 신체 사용부위에 따라 페이스페인팅, 판타지 메이크업, 바디페인팅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8등신을 기준으로 인체 공간적 사용부위를 크게 3등분으로 분류한 전문서적⁴⁾을 토대로 첫째, 얼굴을 중심으로 신체의 13%공간을 차지하는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둘째, 신체범위의 25%를 차지하는 상반신 위주의 판타지 메이크업(Fantasy Make-up), 셋째, 신체의 100%, 전신에 표현하는 바디페인팅(Body Painting)으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1)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페이스페인팅이란 말 그대로 물감을 이용하여 ‘얼굴에 칠하는 것’으로 얼굴의 곡선과 면을 최대한 활용한 미적표현의 예술작품이다. 표현방법으로는 여

2) 이규리(2012), 「입체주의적 콜라주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 파피에 콜레 기법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5.

3) 오인영 외(2010),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서울 : 훈민사, pp.10-11.

4) 장혜선(1992), 『Fashion Illustration』, 서울 : 교학연구사, P.23.

러 가지 문양, 추상적 화법, 사실적 묘사, 빛의 음영 처리로 부각시키는 조각상, 사진 기법을 이용한 연출 등 인체를 하나의 캔버스로 보고 포인트를 주듯 작은 부위에 그리거나 얼굴 전체에 그리기도 하는 형태로서 그 사용처와 역할은 다양하다.⁵⁾

페이스페인팅의 근원지는 원시시대로 정확히 언제부터 자신의 몸에 색을 이용하여 창조적 충동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벽화나 많은 유물들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원시시대에는 얼굴이나 가슴 등에 점토나 안료를 가지고 여러 문양을 나타내며 몸을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본능의 표현과 전쟁당시에 위장의 수단으로 쓰였다면, 고대시대에는 샤머니즘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배하는 사회였으며 초자연적인 자연과의 융합을 위하여 가면을 착용하였는데 이 가면은 초자연적인 힘으로부터 위장하거나 악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⁶⁾ 현재에 이르러서는 흥을 돋우고 목적이나 의미를 나타내는 축제에서 사용되어지는데 서양은 <그림 1><그림 2>의 가면무도회, 신년파티, 혹은 이브닝파티 등과 같은 크고 작은 화려한 행사가 많기 때문에 동양보다 서양의 문화에서 찾아보기 쉽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젊은이들이 파티에서 작가를 섭외하여 즉석에서 페인팅을 하기도 하고 <그림 3>과 같은 해학적인 이미지는 대학가에서 각종 행사에서 자주 이용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마지막, <그림 4>는 어린이 얼굴에 공룡 이미지를 그린 것으로 유치원이나 학교 행사에 이용된다.

오늘날 페이스페인팅은 현대예술을 대변하는 뮤지컬, 오페라, 연극, 패션쇼 등의 공연예술로 우리 삶의 전반에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특별하고 인상적으로 보이게 하여 누군가에게 집중되기를 원할 때 하는 특별한 메이크업이다.

5) 김영희 외(2001), 『토틸메이크업』, 서울 : 정문각, p.131.

6) 천지연 외(2001), 『Face in makeup』, 서울 : 청구문화사, p.13.



〈그림 1〉 페이스 페인팅 1

출처: <http://hooniya.tistory.com/15>



〈그림 2〉 페이스 페인팅 2

출처: <http://hooniya.tistory.com/15>



〈그림 3〉 페이스 페인팅 3

출처: <http://hooniya.tistory.com/15>



〈그림 4〉 페이스 페인팅 4

출처: <http://boingboing.net/2013/03/15/remarkable-face-painting-from.html>

(2) 판타지 메이크업(Fantasy Make-up)

판타지 메이크업은 전위적이고, 실험성이 강한 예술형태로 다양한 재료(펠, 반짝이, 크림, 조각 천 등)를 이용하여 신체 공간 중 25%를 차지하는 상반신과 메이크업, 의상, 헤어, 장식까지 포함한 토털 스타일링을 말한다. 즉, 얼굴 부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트 의상과 헤어, 장식 및 오브제를 사용하여 과장되게 하되 창의적인 연출이 필요하다.

판타지 메이크업의 어원을 살펴보면 “터무니없는 공상, 종잡을 수 없는 상상이나 즉흥적인 착상”이란 뜻이다. 즉, 작가가 상상하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어떤 제재나 일정한 틀의 구속에서 벗어나 아티스트의 예술적 영감과 실험정신을 반영하여 환상적인 느낌을 형상화 시키는 구체적인 작업이다.

이처럼 메이크업 분야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작가의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판타지 메이크업은 실제와 상상의 세계를 교합하는 추상적인 존재, 동물의 형상화, 현실과 초현실을 연결하는 도구로써 발전되어 왔다. 특히 연극, 무용, 음악 등의 무대 예술에서 주로 표현되고 있으며, 위의 페이스페인팅과 마찬가지로 축제나 파티, 무도회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그림 5>는 얼굴 및 데콜테의 상반신 이미지이며 <그림 6>은 헤어부터 발끝까지 토털 스타일링한 판타지 메이크업의 전신 이미지이다.



〈그림 5〉 판타지 메이크업 1



〈그림 6〉 판타지 메이크업 2

출처: http://www.kmaa.or.kr/new/04_gallery/read.php?field=&wo

출처: <http://cafe.daum.net/AHN0123/9ylA/1173?docid=14XIEI9ylA|1173|20110831144037>

(3)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바디페인팅은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인위적인 수단으로 시작되어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함으로서 타인에게 미적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생태적 미화 본능설과 자신의 힘과 능력, 부를 과시하고자 하는 트로피즘, 장식을 통해 악을 물리치고, 행복을 가져올 거라고 믿는 토테미즘, 상대방에게 공포와 위압감을 주기 위한 테러리즘, 신체 일부를 의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시선을 끌어 자신의 성적 매력을 과시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에로티시즘 등 여러 학설로 설명 되고 있다.

바디페인팅이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방법을 이용하여 인체에 디자인하여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즉, 입체적인 바디 라인을 고려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작가가 그린 그림에서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이다. 신체예술로서의 바디 페인팅은 정지된 상태로 일정시간 동안에 자유로이 감상할 수 있는 작품과는 달리 일회적이고 보존되지 않는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정지 되어 있는 예술품보다 사실적 작품에서 실험적 작품들까지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며 영상매체로서의 보존을 통해 오래도록 살아있는 감동을 줄 수⁷⁾ 있다. 표현 방법으로는 다양한 화법, 추상적인 문양, 사실적 묘사, 무대와 조명, 컨셉에 맞는 소품, 음악, 특수 효과, 모델의 표정과 안부 등의 모든 것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도록 표현하는 작품이다. 채색법으로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이므로 인체의 골격을 먼저 파악한 후, 몸의 곡선과 면을 최대한 살려 작품성격에 맞는 이미지를 아름답게 표현한다. 오늘날 바디페인팅이 지니는 <그림 7><그림 8>과 같은 독특한 특징을 부각시켜 광고, 공연, 퍼포먼스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9><그림 10>은 신체를 나누어 이중적인 표현을 그린 바디 페인팅 디자인이다.

7) 맹월(2011), 「Lace를 이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조형성」,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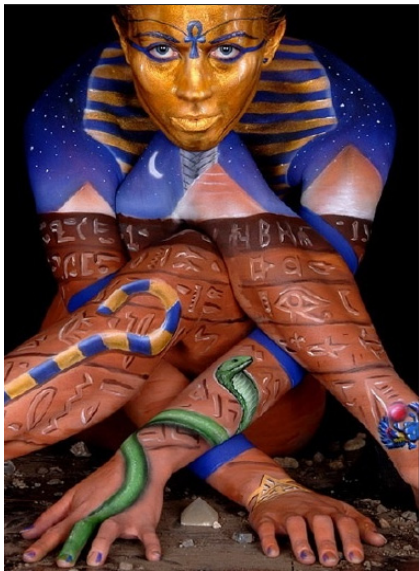
〈그림 7〉 바디페인팅 1

출처: [http://blog.naver.com/jwanna?](http://blog.naver.com/jwanna?Redirect=Log&logNo=10093071270)
Redirect=Log&logNo=10093071270



〈그림 8〉 바디페인팅 2

출처: [http://blog.naver.com/msp21c?Redi](http://blog.naver.com/msp21c?Redirect=Log&logNo=150050419516)
rec=Log&logNo=150050419516



〈그림 9〉 바디페인팅 3

출처: [http://blog.naver.com/sy992?](http://blog.naver.com/sy992?Redirect=Log&logNo=80144513530)
Redirect=Log&logNo=80144513530



〈그림 10〉 바디페인팅 4

출처: [http://blog.naver.com/sy992?](http://blog.naver.com/sy992?Redirect=Log&logNo=80144513530)
Redirect=Log&logNo=80144513530

3) 아트메이크업의 표현기법

아트메이크업은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영혼을 표출하는 무한의 예술영역이다. 현대에 이르러 기법과 재료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트메이크업의 표현 기법을 회화적 기법(Painting Technique), 콜라주 기법(Collage Technique), 에어브러시 기법(Airbrush Technique), 스텐실 기법(Stencil Technique), 조명 기법(Light Technique)으로 구분하였다.

(1) 회화적 기법(Painting Technique)

회화적 기법은 메시지 전달이 용이하여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기법으로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주제를 형상화하는 것으로 파운데이션, 컬러 물감 등 다양한 재료와 모든 컬러의 사용으로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어서 색채감각이 탁월하다.

표현방법으로는 회화적 페인팅 기법, 액션페인팅 기법, 디지털 페인팅 기법이 주로 사용된다. <그림 11><그림 12> 회화적 페인팅 기법은 사실적인 묘사로 보는 이에게 대상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기법이다. 두 번째, <그림 13>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 기법은 우연적으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물감을 사용하여 인체에 흘리거나, 뿌리기 등의 추상적으로 묘사하는 기법으로서 평면적인 종이 위에 디자인 된 그림은 많지만, 바디페인팅에서는 보기 드물다. 마지막, 디지털 페인팅(Digital painting) 기법은 컴퓨터상에서 2, 3차원의 그래픽으로 작업하는 디지털 묘사로 표현된다. <그림 14>는 페인팅과 디지털의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처럼 회화적 기법은 다양한 재료와 컬러 및 묘사로 바디페인팅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다방면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어 지고 있다.



〈그림 11〉 회화적 페인팅 기법 1

출처: http://blog.naver.com/kor_kimpo?Redirect=Log&logNo=110115709027



〈그림 12〉 회화적 페인팅 기법 2

출처: <http://blog.naver.com/hoilhm?Redirect=Log&logNo=40132446615>



〈그림 13〉 액션 페인팅 기법 3

출처: <http://www.paintedalive.com>



〈그림 14〉 디지털 페인팅 기법 4

출처: <http://cafe.naver.com/bestbeautyart/1580>

(2) 콜라주 기법(Collage Technique)

콜라주 기법은 재료를 풀칠하여 붙이는 기법으로 3차원적 물질인 오브제의 다양한 재료를 조립하여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오브제는 시각적 · 촉각적 및 다른 방법을 통해 인식되는 것, 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과 주체가 인식 할 수 있는 물건 · 물체라는 뜻과 인식 주체의 인식 대상으로서의 정신적인 것을 포함한 대상 및 객체라는 뜻을 품고 있다.⁸⁾

미술에서는 어떤 대상이 우연적이거나 필연적인 효과에 따라서 작품의 소재가 될 때,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용도나 의미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대상성을 가지고 예술작품으로 전환되어지는 경우, 그 대상을 오브제라고 한다. 이렇듯 오브제기법은 예술의 재료, 형식,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외부의 세계를 정복하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큐빅, 불가사리, 글리터’를 사용한 〈그림 15〉는 청아한 바다 속의 풍경을 표현하였고, 〈그림 16〉은 ‘말 모양의 속눈썹’, 〈그림 17〉〈그림 18〉은 무지개 색상의 작은 ‘구슬 사탕’과 ‘달걀 껍데기’ 소재를 활용하여 참신함이 돋보인다. 이러한 오브제 기법은 현대의 메이크업에 영향을 미쳐 소재확장과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그림 15〉 콜라주 기법 1



〈그림 16〉 콜라주 기법 2

출처: <http://cafe.naver.com/yonginmbeauty/551>

출처: <http://blog.naver.com/dodosuna?Redirect=Log&logNo=30162239399>

8) 박찬국 외(1995),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서울 : 재원, p.186.



〈그림 17〉 콜라주 기법 3



〈그림 18〉 콜라주 기법 4

출처: <http://cafe.naver.com/dodoacademycafe/1439>

출처: <http://cafe.naver.com/ujbbbeautyac/76>



〈그림 19〉 에어브러시 기법 1



〈그림 20〉 에어브러시 기법 2

출처: <http://blog.naver.com/sfxkorea2008?Redirect=Log&logNo=40143178592>

출처: <http://blog.naver.com/aurabusan?Redirect=Log&logNo=20174469710>

(3) 에어브러시 기법(Airbrush Technique)

에어브러시 기법이란 공업용 도색기계인 컴프레서(compressor)를 이용하여 압축된 공기의 압력으로 원하는 부위에 에어브러시 건(Airbrush-gun)을 통

해서 물감을 분사하여 표현하는 기법을 말한다.

에어브러시의 기원을 살펴보면, 지금부터 약 3만 5천 년 전에 구석기인은 속이 비어있는 뼈를 사용하여 분말인 레드오커를 동굴 벽에⁹⁾ 뿜는데서 시작되었다. 일찍이 발견된 프랑스의 라스코나페슈멜르 동굴에 반복하여 나오는 손 이미지에서 손의 윤곽을 분사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전수된 것은 1940년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최근에는 인쇄제판의 수정과 음화 및 양화 사진의 수정 등에 사용되었고¹⁰⁾ 현재는 〈그림 19〉 바디페인팅, 〈그림 20〉 메이크업에 활용된 것처럼 전체적으로 옷을 입히듯이 은은하게 그라데이션하여 표현하는 방법과, 선적인 요소나 어떤 모양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이처럼 에어브러시 기법은 디자인 작업이나 순수미술, 네일아트, 특수 분장, 바디아트, 아트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일반 메이크업 등에서도 빠질 수 없는 표현도구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추세이다. 이유인즉슨 핸드페인팅에 비해 시간이 단축되고 주름이나 그라데이션의 자연스러운 정교한 작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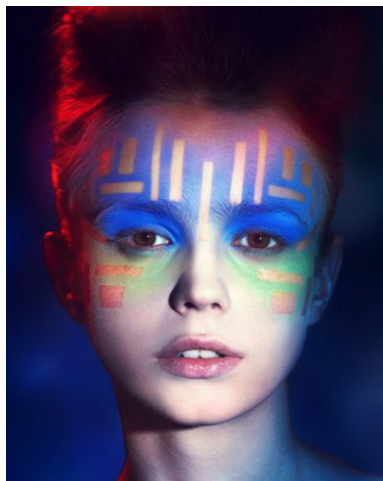
(4) 스텐실 기법(Stencil Technique)

프린팅의 약자이자 염색작업의 하나인 스텐실 기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문양을 투명한 OHP 필름이나 종이 등에 오려 내거나 차단하여 판면에 뚫린 구멍으로 잉크를 밀어 넣음으로써, 막힌 부분은 도안 그대로 남고 뚫린 부분만 잉크가 새어나가 도안에 찍히도록 하는 기법으로, 그 도안을 표현하고자하는 부위에 밀착시켜 에어브러시나 스펀지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스텐실 기법은 어떤 테크닉을 요하는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작업할 수 있으며, 작업시간이 짧아 제품의 로고와 같은 홍보 이벤트에 용이하게 사용되어진다. 스텐실 작업 시 레이스, 어망, 철망 등을 이용해서 얼굴에 찍어주면 자로 잰 듯한 깔끔한 문양이 나타나며 아트메이크업을 추상적 이미지로 연출 할 수 있다.¹¹⁾

9) 이재형(2004),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0.

10) 김공용(1991), 『Airbrush Illustrations』, 서울 : 조형사, p.140.

〈그림 21〉〈그림 22〉는 직사각형과 그물의 도안을 만들어 그 부분 외의 면적을 에어브러시 권을 쏘아 그린 방법이다.



〈그림 21〉 스텐실 기법 1



〈그림 22〉 스텐실 기법 2

출처: <http://cafe.naver.com/dodoacademycafe/1428>

출처: <http://cafe.naver.com/dodoacademycafe/1428>



〈그림 23〉 UV 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기법



〈그림 24〉 일루미네이션 기법

출처: <http://blog.naver.com/h3133712?Redirect=Log&logNo=130075943926>

출처: <http://www.ohgizmo.com>

11) 이승은(2012), 「더페이스망 기법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5) 조명기법(Light Technique)

조명기법은 〈그림 23〉 UV 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 기법(UV color & Black light Technique)과 〈그림 24〉 일루미네이션 기법(Project Illumin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블랙라이트 기법이란 블랙 라이트로 인해 발광하게 되는 UV 발광물감과 빛을 결합한 과학적 바디페인팅 기법으로 수성물감 중 UV 발광물감을 사용하여 블랙라이트에서 보다 선명한 색상으로 표현되는 기법이다. UV 발광물감에 의한 작품은 블랙라이트 조명에 표현할 때 본래의 피부색인 스킨컬러는 블랙으로 표현되는 반면, UV 물감으로 채색한 부분은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독특한 효과를 낼 수 있고 색채가 네온칼라이므로 대체적으로 화려하다.¹²⁾ UV 발광 물감으로 디자인 한 무용수의 바디 작품에 퍼포먼스를 접목하여 관객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바디페인팅의 예술성과 퍼포먼스의 대중성이 결합되는 새로운 장르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일루미네이션 기법은 슬라이드 필름을 사용하여 실제 사물을 촬영하거나 몸에 투영 될 무늬를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 신체 위에 그 무늬의 빛 또는 그림자를 얻는 것으로 그 대상의 표면의 질감과 색조를 변형시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기법이다. 영상물을 투사하여 연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 환경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직접적인 페인팅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회화적인 테크닉을 요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12) 남은선(2009), 「아트메이크업의 表現技法研究 : 表現方法 및 使用材料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9.

제 2 절 프랑스의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의 이론적 고찰

1. 아방가르드 예술(Avant-garde Art)

1) 아방가르드 예술의 개념

‘아방가르드(Avant-garde)’라는 개념은 적군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선을 넘어 적진으로 보내는 척후병을 의미하는 불어의 군사 용어였다. 1794년 『L' Avant garde de l'armee des Pyrenees orientales』라는 피레네 동부군 전위대의 군사 간행물로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표어로 자코뱅의 이념을 옹호하기 위한 급진적 정치적 사상이 있어 아방가르드 개념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¹³⁾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를 과도하게 펼치는 움직임으로 전위파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모더니즘의 동의어 또는 저항적인 예술가와 문인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미술용어 사전에서 ‘아방가르드는 전위, 선두, 선구 등의 뜻으로 인습적인 권위와 전통에 반항, 혁명적인 예술운동의 가치를 내걸고 행동하는 예술운동으로 특정의 주의나 형식을 가르키는 용어라기보다는 신세대의 급진적인 예술정신 전반에 걸쳐서 사용하는 말’¹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아방가르드’는 하나의 사조도, 철학도 아니고 모더니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처럼 역사적 시간의 틀을 제공하는 개념도 아니다.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일본 등 지역에 따라서, 또는 ‘비인간화된 예술’, ‘새로운 예술’, ‘젊은 예술’, ‘추상 미술’ 등 장르에 따라서 그 쓰임이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의미로 다양하게 변하긴 했지만, 보편적으로 아방가르드라는 개념은 지적 급진성을 띠는 특정한 문화적 실천을 대변하는 용어였다. 이러한 예술 분야에서 아방가르드의 개념은 20세기의 구체적 상황에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그에 따라 모더니즘과 충돌하거나 또는 모더니즘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미술 경향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듯하다.¹⁵⁾

오늘날 방송매체는 물론 대중언론매체에서까지 흔히 접할 수 있는 아방가

13) 이영욱(1993),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서울 : 시각과 언어, p.131.

14) 월간미술편(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 중앙일보사, p.341.

15) 진휘연(2002), 『아방가르드란 무엇인가』, 서울 : 민음사, p.8.

르드는 트렌드의 선두주자로서 ‘난해함이 엿보이는 것’ 또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생소한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예술적 양상은 아이러니 하게도 극단적인 부정의 아방가르드가 마침내 성공하고 다시 대중의 예술, 아카데미즘의 예술 그리고 후위 예술이 되었다. 쉽게 말해 기성예술과 전통을 거부한다는 부정적인 면과 희망을 약속한다는 긍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술가들은 뭔가 가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기대하며 실제로 작품을 만들어 본다는 의미와 미완성작 과도기적인 것이라는 상반된 의미로 풀이한다. 이처럼 ‘아방가르드’라는 단어는 예술은 물론 문화 전반의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되었다.

2) 아방가르드 예술의 등장배경

규범적인 과거에 대한 철저한 거부의 정신으로 반전통주의, 반과거주의를 지향하는 아방가르드 예술이라는 용어는 신라틴어족과 문화에 있어 매우 배타적인 어휘론적 유산이다. 그 용어는 스페인 문화와 남미 문화에서 규칙적으로 사용되었고,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되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뿌리를 내리고 익숙해졌다. 이 사실은 두 나라의 문화에서 그 용어에 함축된 문제에 대한 감각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알 수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는 예술과 문화에서의 사회성 내지 사교성 또는 그 반대의 관점 아래서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를 고려하려는 독특한 경향이 나타난다.

아방가르드는 프랑스에서 혁신과 실험을 중시하는 새로운 기류를 반영하여 예술 운동에 적용하면서부터 19세기에 예술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1870년에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프랑스 정신이 프러시아와의 전쟁에서의 패배와 코뮌의 혁명과 진압으로 표현되는 국가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이때 비로소 구체적인 의미를 취하면서 떠올랐다. 즉, 1880년대 이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아방가르드와 예술적 · 문학적 아방가르드를 분리해서 지칭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적 의미의 아방가르드는 순전히 수사학적 의미로만 남은 반면, 예술적 의미의 아방가르드는 오로지 예술적인 급진주의를 가리키기 위한 ‘심미적 개념’으로서 20세기 초부터 최근까지 서구의 모든 예술적 아방가르드를 지칭하는 자율적 예술이라는 독립된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일차세계 대전의 영향으로 예술 분야의 발전이 주춤하긴 했으나, 1918년 전쟁이 끝났을 때 파리는 창조적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아방가르드는 하나의 예술적 개념으로서 기존의 예술성을 지향하는 예술이 거부되었고,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도발적인 예술행위가 등장하면서 새로움의 숭배에 의해 규정되는 유파를 지칭하게 될 만큼 충분히 포괄적으로 되었다. 그 이유는 당대의 예술가들이 예술전통이나 인습에 안주하지 않고, 쇄도하는 새로움을 감지하며 자신의 재능은 물론 삶을 바치면서까지 새로운 형식과 기교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실험하고 모색했기 때문이다.

2. 프랑스의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

1) 프랑스의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경향

19세기 후반, 세계 최초의 전철인 ‘파리 지하철(Paris Metro)’은 도시의 생활속도를 빠르게 만들며, 같은 시기에 철학자 베르그송(Henri Bergson)은 시간과 변화 및 발전의 이론을 연구하여 시간을 분리된 시간의 연속으로 보기 보다는 하나의 계속적인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1902년에는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첫 저서인 『꿈의 해석』이 발간되었고, 프랑스의 한 감독은 최초로 공상과학 무성영화 <달나라 여행>을 제작하였다.¹⁶⁾ 이 외에도 최초의 대서양 횡단 비행 및 전화기 사용 등으로 고립은 불가능한 것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거리에 대한 감각이 변하고 있었다. 더하여 제1차 세계대전으로 독일군에게 침공을 당한 프랑스인들은 정서적으로도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했다. 사회적 · 문화적으로 격변의 시대와 충돌한 예술가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 의식 속에서 새로운 문명세계에 영감을 받아 현대 예술의 다양한 실험을 이어갔다.

20세기에 비공식적 예술 인구가 수천 명의 화가와 작가들로 늘어나면서 여러 개의 아방가르드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한 비평가는, 파리에서 1911년 한 해에만 새로운 그림이 거의 삼만 점 가까이 발표되었고, 1900년과 1914년 사이에 각각 서로 다른 ‘주의’를 표방하는 작은 문학 · 미술잡지가 이백여 종

16) 로즈메리람버트(1986), 『20세기 미술사』, 이석우 옮김, 서울 : 열화당, p.12.

창간되었다고 추정했다.¹⁷⁾ 많은 화상과 수집가들은 새롭고 정통적이지 않은 미술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시장 기반이 확장되어 1909년쯤이 되자 미술시장은 새로운 화상의 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활기를 띠었다. 이미 회화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그 여파는 조각에까지 파급되어 조각의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이처럼 20세기에는 그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그리고 더 신속한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20세기에 재탄생된 아방가르드의 예술적 개념은 흔히 미술을 포함한 현대문화와 문명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 중의 하나로 각광 받았다. 또한 20세기는 회화를 비롯한 건축, 조각 등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지만 유독 회화에서 엄청난 변화와 실험이 행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회화분야에서 프랑스의 20세기 예술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프랑스의 20세기 회화경향

20세기의 회화는 빠른 리듬으로 가장 경이로운 탐색을 하였다. 20세기 미술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시대처럼 특정 유파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과는 달리 세계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유파들이 나타났다. 일단의 미술가들은 하나의 방법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흔히 함께 작업하며 누군가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이름을 붙여주면 그것은 하나의 ‘운동’이 되었다. 이런 운동들은 때때로 신속하게 잇달아 일어났기 때문에 미술가들은 이 운동에 속했다가 어떤 때는 다른 운동에 속하기도 하여 정확하게 구분 짓기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었으나 각각의 ‘운동’의 개별적 특성들이 한 시대의 미술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삼을 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 회화운동 유형 및 특성

프랑스에서는 20세기 초 ‘야수주의’를 시작으로 ‘입체주의, 파리주의, 추상미술, 초현실주의, 신사실주의’의 운동들이 일어났다. 본 연구자는 시대적 순서에 입각하여 20세기 아방가르드 미술을 분류 및 정리해 보고자 한다.

17) 데이비드코팅턴(2003), 『큐비즘』, 전경희 옮김, 파주 : 열화당, p.14.

① 야수주의(Fauvism, 1905-1907)

20세기 초 최초의 회화운동으로 이론적인 운동이라기보다는 교우관계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그룹이 야수파이다. ‘야수파’란 용어는 1905년 파리에서 있었던 ‘가을 살롱전’(Salon d'Automne)에 출품한 마티스와 일군의 화가들에 대해 미술비평가 루이 보셀(Louis Vauxcelles)이 사용한 표현에서 비롯되었다.¹⁸⁾ ‘색채의 해방’을 슬로건으로 한 주장적인 경향을 대표하는 야수파 운동은 인상파(Impressionism)나 신인상파(Neo-impressionism)의 타성적인 화풍에 반기를 든 젊은 작가들의 일시적인 만남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야수파는 중류계급의 고상함과 아카데미한 꾸밈 그리고 암시적이지만 모든 것을 숨기는 아르누보(Art Nouveau)적 우아함이 성행하던 시대에 솔직하고 대담한 표현을 시도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가을 순수한 색채의 고양에 기초를 둔 야수파 운동은 결국 외계질서를 그대로 화면에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화폭을 자기 해방의 장소로 생각한 점 및 색과 형의 자율적인 세계를 창조하려 한 점 등에서 20세기 최초의 예술적 혁명이었다.

미세한 색조 분할수법과는 대비되게 단순화된 붉은 필촉과, 순도가 높은 원색을 사용했으며, 인상파의 빛에 의한 명암법은 거부하지만 강렬한 색채와 격렬한 정신의 표현은 고흐(Vincent van Gogh)를 대상으로부터 독립된 색과 형에 의한 조형질서를 표현한 점은 고갱(Paul Gauguin)의 영향을 받았다. 야수파 중에서도 출중한 존재는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를 중심으로 조르주 루오(Georges Rouault), 알베르 마르케(Albert Marquet), 모리스 드블라맹크(Maurice de Vlaminck) 그리고 안드레 드랭(Andre Derain) 등이 있다. 후에 키스 반 동겐(Kees van Dongen),f, 라울 뒤퍼(Raoul Dufy),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 등이 야수파 운동에 동참하였다. 이들은 색채를 재현적, 사실적인 역할에서 해방시켜 감각적으로 호소하는 표현수단으로 확립하고자 했으며, 그 표현에 있어서는 야수주의 화가들이 각기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 브라크는 풍경에 나타난 감각적 색채의 도취를 추구하고, 루오는 인체를 통한 내면세계의 표현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마티스는 대담한 형태의 단순화와 강렬한 순색의 평면적인 채색으로 회화를 선의 아라베스크와 큼직한 색면구도

18) 김찬영(2006), 「스티븐스 시에 나타나는 마티스의 회화적 요소」,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로 환원시켜 추상회화의 가능성을 예고하였다.

야수파 화가들은 제각기 다른 소재와 구성 감각을 추구하지만 색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이들은 장식적인 프랑스 미술의 전통에 다시 생기를 불어 넣었으며 해방된 색채의 자유로운 수법으로 격렬함을 지닌 작품을 낳아 현대문화를 더욱 다양하게 발달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브라크의 입체주의 전환 및 야수파 화가들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인해 색채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1907년에 야수파는 해체한다.

◇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

야수파를 이끈 마티스 그는 고전적인 규칙들로부터 회화를 해방시키고, 장식적 모티프로 화면을 처리함으로써 회화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피카소와 브라크의 입체주의를 피상적으로 수용하고 고갱과 리드미컬한 선적 패턴과 단색의 평평한 색의 영역을 표현적으로 구성하는 독자적인 양식으로 발전시키면서 20세기 초, 몇 년간은 자신만의 장식적이고 표현적인 추상 양식을 완성해 나갔다.

그는 작품에서 사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색채를 부정하였으며 전통적인 방법에서 일탈한 매우 혁명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수많은 시도 속에서 마티스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자유롭고 강렬한 색채 표현이었다. 또한, 곡선미와 기계적 형태가 아닌 유기적 형상을 강조하고 있다. 지나치게 로코코(Rococo) 양식에 빠져 있다고 생각 될 정도로 인물과 배경, 표면과 깊이간의 상호관계를 모호하게 하기 위하여 연결부분의 명료성을 거부하였다. 장식적 모티프는 색채표현의 자율성, 사물 형태의 단순성, 조형적인 평면성 그리고 추상성에 이르기까지 화면에 장식 자체를 살리고 독립적인 가치로 보아 그의 장식적 모티프가 새로운 회화양식을 완성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티스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거친 붓놀림과 감동을 격렬한 순수 색채와 장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에게 있어서 장식적이라는 개념은 미술이라는 개념과 같은 의미이다. 원래 마티스는 화가가 될 운명도, 조숙한 천재도, 피카소 같은 신동도 아니었다. 그의 평생 작업은 색채와 빛과 공간과 조화의 창조

에 대한 비길 데 없는 헌신에서 출발하여 꾸준히 점진적으로 발전해¹⁹⁾ 야수파의 창시자이자 색채의 대가로 불리며 프랑스의 화가로 거듭났다.

② 입체주의(Cubism, 1908-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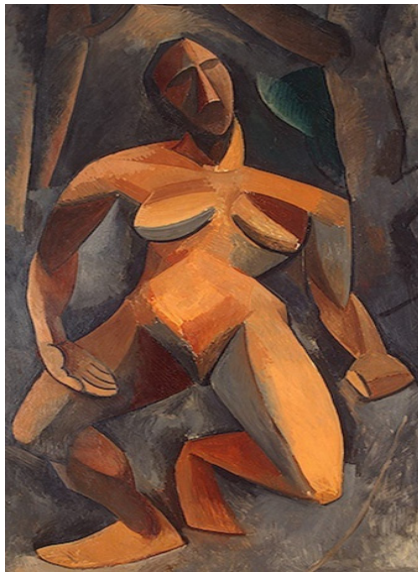
입체주의는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조르주 브라크와 후안 그리스(Juan Gris) 등이 운동의 중심이 되어 인상파, 야수파, 표현주의(Expressionism)에서 극을 이루는 색채주의에 대한 반동을 나타내고 있다. 입체파는 브라크의 작품에 ‘큐브(Cube)’라는 이름이 붙여진 데서 비롯된 명칭으로 대상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종합하여 표현하려는 회화의 한 유파이다.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세잔느(Paul Cezanne)는 입체파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화가로 이전에 대상으로서의 물체와 인간의 사이의 연원을 정신적 고뇌로 표현하였다. 입체파는 더욱 이것을 발전시켜 물체를 다양한 시점에서 조망하여 많은 시각의 복합체로서 회화화했다.

전통 회화가 2차원 캔버스 위로 3차원 대상을 최대한 그럴듯하게 끼워 맞추는 역사였다면 입체주의는 정반대로 3차원 대상을 2차원 캔버스에 걸맞게 면들로 해체한 후 늘어놓은 것 같은 인상을 줬다. 이처럼 이 시기에는 그리려는 사물의 형태를 분석하고, 수많은 파편으로 분할하여 화폭 위에 나열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사물을 하나의 시점이 아닌 여러 가지 시점으로 보게 되어 시각의 다원적 전개를 표현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사물의 형태가 전후좌우로 섞여 일상적인 눈으로 보는 형태의 흔적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입체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혁명적 방식이 콜라주였다. 이것은 회화의 권위와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되었고, 피카소 역시 충격을 줄 목적으로 이런 시도를 감행했다.

입체주의는 일반적으로 세잔풍의 초기 큐비즘 시대(1907-1909), 분석적 큐비즘(1910-1912), 종합적 큐비즘(1912-1914)의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5> 초기 큐비즘 시대는 자연을 ‘원추, 원통, 구’에 따라 취급한다는 세잔의 발언으로 입체주의의 발단이 되었다. 그의 예술과 흑인 조각은 이 운동의 초기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자연의 여러 가지 형태를 기본적인 기

19) 폴크마에서스(2006), 『앙리 마티스』, 김병화 옮김, 서울 : 마로니에북스, p.7.

하학적 형상으로 환원하고 사물의 존재성을 구축하여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큐비즘의 본격적인 양식은 〈그림 26〉 분석적 큐비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는 대상의 분석과 해체를 통하여 새로운 미학을 정립시키는 것을 주요 과제로 여겼다. 분석적 단계에서는 거의 검은색, 황토색, 브라운 계통의 어두운 색채만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색채 제한으로 큐비스트들은 삼각뿔, 정육면체, 입방체, 원통형, 평면과 단면으로 환원시켰다. 〈그림 27〉 종합적 큐비즘은 자유롭게 작업하면서 형태를 파괴하기보다는 상징에 가까운 이미지들을 만들어 내는 주관적이고도 임의적인 방식으로 형태들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더욱 심화된 평면성, 단순성, 풍부해진 색채와 질감, 개성적인 작품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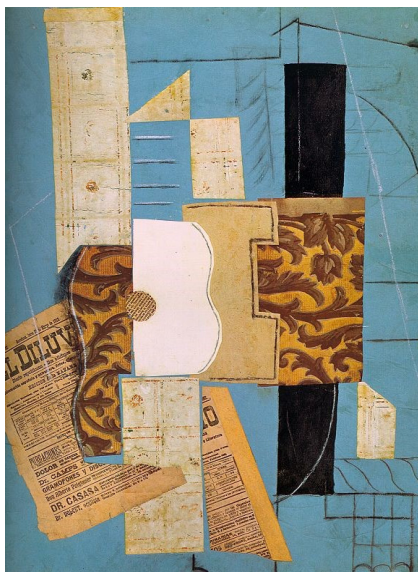
〈그림 25〉 숲속의 누드(1908)

출처: [http://blog.naver.com/killr21?](http://blog.naver.com/killr21?Redirect=Log&logNo=100038267776)
Redirect=Log&logNo=100038267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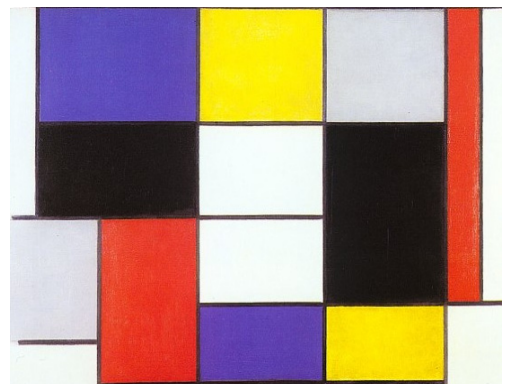
〈그림 26〉 칸바일러(1910)

출처: [http://blog.naver.com/killr21?](http://blog.naver.com/killr21?Redirect=Log&logNo=100038267776)
Redirect=Log&logNo=100038267776



〈그림 27〉 기타(1913)

출처: <http://cafe.naver.com/greenlove71/506>



〈그림 28〉 구성 A(1920)

출처: [http://blog.naver.com/arcadium?](http://blog.naver.com/arcadium?Redirect=Log&logNo=80126766484)
Redirect=Log&logNo=80126766484

◇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

피카소가 작품 활동을 시작하던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이전까지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전해 내려온 회화의 기법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던 때로 야수주의에서 입체주의의 전환기였다. 그는 20세기의 가장 큰 변혁을 일으켰던 입체주의의 창시자이자 사실주의에서 초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양식의 폭이 넓다. 기법과 주제가 다양하게 변화하여 그 주제의 중심은 전쟁과 사랑, 빈곤과 절망, 노여움과 기쁨 그리고 사랑과 성이었다. 그는 예술가들이 몇 세기 동안 사용하여 오던 재료를 버리고, 새로운 실험적 재료와 기술을 채택하여 표현하였다. 이로 인해 아트 메이크업인 페이스페인팅이나 바디 페인팅, 판타지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재료 선택과 다양한 표현으로 오브제를 활용한 기법이 등장하게 되면서 현재의 퍼포먼스의 실험적 예술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피카소 회화에 있어서 선은 면을 이루고 형태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명도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사용한 어두운 색의 테두리 선은 회화의 평면성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그가 1911년 새롭게 선보인 콜라주 기법이다. 콜라주 기법은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표, 신문조각, 벽지 등을 화면 위에 잘라 붙이는 방식으로 입체주의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나 화면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기법은 점차 다양한 형태로 실체적 요소가 등장하면서 무엇이든지 부착시키기 시작하면서 쓸모없는 폐물들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었다. 그는 비록 짧은 입체주의 콜라주를 제작하였지만, 입체파 콜라주의 모태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그의 예술세계는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과 판화, 도자기, 삽화, 무대의상에까지도 예술적 영역을 넓혀갔다.

③ 파리주의(Ecole do Paris, 1914-1945)

파리파란 특정 지역에서 구성된 예술가 그룹의 성격을 20세기 초를 정점으로 파리에 거주하면서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신사실파 등을 제외한 어떤 유파도 아닌 이방인 화가집단을 뜻하는 협의와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2차

세계대전 후에 프랑스 파리의 몽파르나스를 중심으로 모여든 예술가의 집단을 말한다. 즉, 전위적인 시인, 작가, 육정의 귀부인, 정치 망명객, 각종의 테러리스트, 가수 화가를 총망라한 뜻인 광의로 구분한다. 넓은 의미로는 각 시대의 여러 가지 미술·공예의 영역에 존재하였으나 1925년경부터는 당시 파리에서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국외 예술가들의 호칭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세기 초부터 30년대까지 파리에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우리들에게 매우 친숙하다. 샤갈이나 루오, 수틴, 모딜리아니의 그림을 보면, 거기에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²⁰⁾ 모두 유태계 화가였기 때문에 애수를 띤 우울한 정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은 감상적이며 퇴폐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

파리파는 프랑스 미술의 세계적 명성과 혼성되어 있는 이방인 예술가의 큰 흐름에서 유래되어 과거에 몇 번이나 형성되었다. 모두 1880년대에서 1900년에 태어난 동시대인들이며 프랑스 국외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다는 점에서 공통된 처지에 있었다. 그들은 화가로서의 자질과 목표는 서로 달랐으나 조국을 갖지 않은 민족으로서 우울한 정서와 반항적인 기질, 감수성에 감화되어 그러한 분위기 속에 그들의 예술을 키워갔다. 당시 프랑스화단의 주조를 이루었던 입체파 화가들과는 동시대인으로서 친근한 교우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입체파의 이론이나 작품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그들의 작품은 로맨틱하고 서정적인 경향을 띠는 반면 불안과 애수가 감돌고 있었다.

이렇게 그들은 혁신을 거듭하는 국제화단 파리에서 극히 독자성이 강한 개인주의적 예술을 확립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후의 오늘날에 있어서도 일컬어지고 있지만 그 몇몇 시기 중 특히, 20세기 초가 정점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5)

“초현실주의가 무엇인지 나는 아직 모르겠다. 나는 다만 보는 것, 꿈꾸는 것을 그릴 뿐이다. 나의 회화는 초현실주의보다 훨씬 이전의 것으로서

20) 로즈메리람버트, 전게서, p.61.

형태는 다르더라도 현실의 일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²¹⁾ 라는 입장을 밝히며, 어느 사조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열어 입지를 굳혀 나갔다. 샤갈의 이런 상상력은 그의 환상적 색채, 전통적인 원근법과 현실적인 비례를 무시한 구도, 공간 구성, 표현 기법 등으로 인하여 샤갈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형성하였다.²²⁾

“화가는 자기가 난 곳과 그곳의 향기에 지배를 받는다.”²³⁾는 샤갈의 말처럼 그의 예술 세계는 그의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내용이다. 그의 유년시절 체험은 샤갈 특유의 소재들이 환상적인 표현으로 등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러시아의 일상생활을 묘사한 것으로 그의 자전적 기술이라 볼 수 있으며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장면을 한 장면에 넣으면서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는 자신의 이중 국적에 대해 지녔던 생각과 감정은 주로 고향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 마을의 풍경과 샤갈 개인의 여러 가지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는 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④ 추상미술(Abstractionism, 1914-현재)

추상미술은 1910년 무렵, 유럽 각지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한 운동으로 본격적인 추상의 길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로베르 들로네(Robert Delaunay),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카시미르 말레비치(Kasimir Severinovich Malevich), 블라디미르 타틀린(Vladimir Evgrafovich Tatlin) 등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전쟁 전 오랫동안 입체주의 영향 하에 있던 프랑스에서도 활발한 전계가 이루어졌다. 1930년대에 들어서 파리는 문호 개방을 시작하였고, 추상미술전문지 『원과 네모꼴』을 창간하였다. 또한, 1932년에는 추상·창조 그룹을 결성하면서 칸딘스키(뜨거운 추상)와 몬드리안(차가운 추상)이 합류했다.

21) 이일(1976), 『CHAGALL, 세계미술문고47』, 서울 : 금성출판사, p.60.

22) 최예운(2006), 「마르크샤갈의 작품에 나타난 상상력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

23) 변종하(1972), 『샤갈, 서양미술전집22』, 서울 : 한국일보사, p.125.

추상미술은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순수 조형 요소인 점선면색 등으로 작가의 감정 사상을 표현한 미술양식을 말한다. 즉, 〈그림 28〉 차가운 추상과 〈그림 29〉 뜨거운 추상으로 분류한다. 차가운 추상은 선과 색채의 엄격한 구성에 의한 조형의 원리를 탐구하여 표현한 것이고, 뜨거운 추상은 색채나 형태에 내면적인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프랑스 추상회화의 특징은 입체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이며 들로네, 비용이 그 대표적인 화가이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추상회화도 알프레드 마네시에(Alfred Manessier), 장 바젠(Jean Bazaine), 모리스 에스테브(Maurice Esteve) 등 역시 입체주의적 조형을 기반으로 하여 그들의 추상 세계를 구축해나갔다. 이 무렵 추상미술은 미국에서 활발한 전개를 보여 유럽에 역수입되어 앵포르멜 운동을 낳게 되는데, 1940년대 후반에 등장하여 1950년대 중반에 이미 보편화를 이룩한 〈그림 30〉 추상표현주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의 ‘앵포르멜(Informel)’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액션페인팅’으로 구분되고, 다시 미국의 추상미술은 50년대를 경계로 액션페인팅과 색면추상으로 나뉘진다.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라는 명칭은 미국의 평론가 알프레드 바(Alfred Barr)가 1929년 미국에서 전시 중이던 칸딘스키의 초기 작품에 대해 사용했던 말로 형식은 추상적이거나 내용은 표현주의적이라는 의미에서 처음 썼으며, 1940년에 뉴욕커의 기자 로버트 코츠(Robert Coates)가 미국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일반화 되었다. 이렇게 추상표현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던 예술가들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순간의 걱정을 그대로 화면에 내동댕이친 것 같은 격렬함과 서정성으로 보수파의 저널리즘과 일반대중으로부터 종종 어린아이의 낙서와 같다고 비난받았다. 그러나 점차 이들의 작품은 직접적으로 감각에 호소하는 신선한 표현으로 크게 부각되어갔다.

앵포르멜 운동은 프랑스 추상회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일체의 조형적인 규격이나 문법을 완전히 타파하고, 본능적인 몸짓의 흔적과 대담한 마티에르를 회화에 도입한 이 과격한 추상회화 운동은 40년대 초기 작품을 선구로 하여 50년대의 전 유럽을 휩쓸다시피 하였다. 앵포르멜은 〈그림 31〉

타시즘(Tachism), 서정추상(뜨거운 추상), 〈그림 32〉 마티에르(Matiere) 회화 등이 모두 포함되며 액션 페인팅의 순수한 행위성보다는 행위의 적나라한 궤적으로 드러난 마티에르가 중심이 된다. 마티에르란 물질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물질 자체가 바로 색을 대신함이고 그린다는 단순한 습관적인 테크닉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²⁴⁾ 모래, 풀, 석탄가루를 두껍게 바르고, 쇠꼬챙이 나무로 굵어 생명의 긴장을 질감과 공간으로 직접 드러내는 표현방식으로 전쟁의 참혹함과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실존주의적 태도를 지녔다. 앵포르멜은 기하학적 추상에 대해 반발하여 일어난 운동으로 미리 계획된 구성을 거부하고, 자발적이며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말한다.

24) 신아리(2005), 「장 뒤뷔페의 반문화적 작품특성 연구 : 아방가르드 예술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그림 29〉 노랑 빨강 파랑(1925)

출처: <http://prorok.tistory.com/801>



〈그림 30〉 푸른 기둥들(1952)

출처: <http://blog.naver.com/yj651215?Redirect=Log&logNo=140114090701>



〈그림 31〉 급격한 부활(1950)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389&docId=264314&mobile&categoryId=1389>



〈그림 32〉 길(1964)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70&docId=260234&mobile&categoryId=170>

◇ 장 뒤뷔페(Jean Dubuffet, 1901-1985)

뒤뷔페는 전통이나 유행하는 양식에서 자유로우며 모든 사회적 타협을 초월하고 칭찬이나 미술적 교양이 주는 혜택에 무관심한 정신적 광기와 자폐적인 내적 욕구에서 발생한 예술을 동경했다.²⁵⁾ 지식인 보다는 문맹인,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 젊은이 보다는 노인, 여자 등 아마추어 화가나 어린아이, 정신병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작품에 매료된 것이다. 그는 이러한 미술작품들을 거칠고, 조야한 미술이라는 의미로 '아르 브뤼(Art Brut)', 즉 '가공하지 않은 미술'이라 칭하였다.

'아르 브뤼'는 즉흥적이고 지극히 창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작품 활동으로, 흔히 얘기하는 예술이나 상투적인 문화와는 거의 연류된 바가 없는 예술을 말한다.²⁶⁾ 그의 본격적인 예술 활동은 1942년으로 앵포르멜 미술운동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으며 비주류미술인 '아웃사이드 아트(Outsider Art)'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24년 프린츠호른(Hans Prinzhorn)의 정신병자들의 그림 및 저서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으며 모든 작품 활동을 중단한다. 그 후,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여 1944년 타르, 자갈, 석고, 시멘트 등 이색적인 재료를 실험하는 등 어린아이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표현적이고 단순화된 형태와 그래피티에서 볼 수 있는 직접적이고 활력 있는 낙서 자국 등을 특징적으로 사용하고, 물감을 겹겹이 바름으로써 거친 질감을 만들었으며, 흘러내린 물감 자국과 얼룩을 그대로 드러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비닐 물감으로 채색된 발포 폴리스티렌을 이용한 대규모 조각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여 선으로 이루어진 여러 작품들을 이어 붙여 거대한 콜라주를 제작하였다. 그는 회화를 통하여 동시대인들이 안주하고 있는 안락한 권태로움을 깨뜨리고자 하였다.

그는 '고상한 예술보다 선호하는 거친 미술' 등 제명의 강연을 통해서 자신의 예술을 통해 사회적 체면과 예의 뒤에 숨겨져 있는 원시적이고 근본적인 사실성을 폭로하고자 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으며,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자로 죽기 전까지 5000여 점의 작품을 남기는 등 유럽과 미국의 현대미

25) 장 뒤뷔페(2003), 『아웃사이드 아트』, 장운선 옮김, 서울 : 다빈치, p.168.

26) 노운영(2006), 「장뒤뷔페의 앵포르멜 충돌의 표현적 측면과 해석적 측면 : 기초유물론과 이중학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

술 전계에 엄청난 영향을 준 작가이다.

⑤ 초현실주의(Surrealism, 1924-1966)

초현실주의는 1917년 입체주의 연구자이자 시인인 아폴리네르(Apollinaire)가 자신의 희극 「티레시아의 유방 Les Mamelles de Tiresia」의 부제 ‘초현실극(drams surrealiste)’에서 처음 사용하였고,²⁷⁾ 1924년에 초현실주의 운동을 선언하였다.

사전에서 이것은 “순수한 심령의 자동주의를 통한 구두 또는, 쓰기 아니면 진정한 사고활동에 의한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아무런 이성의 통제가 없는 가운데, 그리고 모든 미적 또는 도덕적 선입견에서 벗어나 사고를 구술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약 20년간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위적 문학, 예술운동으로 전쟁이 끝났을 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다다이스트들은 한군데에 모이기를 열망했고 그 주된 집합장소는 파리였다. 그것은 적어도 전후의 파리의 상황이 다른 곳보다 더 나쁘지는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실이다.²⁸⁾

초현실주의는 적극적 표현과 창조적 태도, 내적 충동의 표현을 강조하여 〈그림 33〉〈그림 34〉의 다다이즘과 구별된다. 꿈의 힘을 빌려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창조된 괴이한 작품을 지칭하는 말로서 초현실주의적 예술의 원천은 바로 무의식의 세계이다. 즉, 자신의 오랫동안 억압된 욕망들이 원하는 인간의 내면적 영상을 추적하는 것이며 현실인 동시에 관념이자 상상이다.²⁹⁾

제2차 세계 대전 후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omingo Felipe),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등이 미국으로 건너감으로써 이 운동의 흐름은 계속 되었지만 미술 운동의 주도권은 상실되고, 이 영향아래 미국에서 추상표현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초현실주의는 다다에서 시작하여 입체파(Cubism)를 비

27) 양기옥(2010), 「초현실주의 헤어와 헤드 드레스 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28) 로베르르네(1990), 『초현실주의 I』, 김정란 옮김, 서울 : 열화당, p.9.

29) 임두빈(1988), 『아방가르드 예술의 정신사적 배경과 의미, 현대미술의 전개와 비평』, 서울 : 미진사, p.34.

못한 현대회화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콜라주의 대가 ‘막스 에른스트(Max Ernst)’를 비롯하여 편집광적 비평방법과 오브제를 통해 초현실주의를 표현한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더페이즈망의 대가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초현실주의와 입체파의 중간다리역할을 한 ‘후안 미로(Joan Miro)’에 이르는 많은 예술가들에 의해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³⁰⁾

표현기법으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토대로 삼아 자동기술(Automatism), 프로타주(Frottage), 데칼코마니(Decalcomanie), 콜라주(Collage) 그리고, 사실적 경향으로 은유와 상징을 표출하는 더페이즈망(Depaysement)을 고안하였는데 첫 번째, 〈그림 35〉 자동기술법은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손이나 신체로부터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움직임과 형태를 작품화한 것으로 자아의 독단적 판단에 근거한 과정이다. 두 번째, 〈그림 36〉 프로타주 기법은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여 나무 파편이나 나뭇잎 위와 같은 요철이나 굴곡이 있는 부분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문질러 그림이 떠오르게 하는 기법을 말한다. 세 번째, 〈그림 37〉 데칼코마니는 ‘그대로 옮기다.’의 뜻인 프랑스어 ‘데칼케르(decalker)’와 ‘다시 정리함’이란 뜻의 ‘마니(manie)’의 합성어로 전사법으로 번역되며, 유화물감을 수분이 흡수되지 않는 성질의 어떤 면 위에 문혀서 캔버스에 찍어 옮기는 기법이다. 네 번째, 콜라주 기법은 ‘폴로 붙이다.’, ‘바르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콜레(collage)’에서 유래된 말로, 하나의 받침대 위에 인쇄물, 천 등 이중의 재료를 오려 붙여 구성하는 기법, 혹은 여러 개의 화면에 붙여서 구성하는 회화 기법으로 기성품에 손질을 가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물체끼리 조합을 통해 별개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내는 기법이다. 마지막, 더페이즈망 기법은 초현실주의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물의 일상적인 위치를 엉뚱하게 바꾸어 놓은 방법으로 자동 기술적 글쓰기의 회화적 표현이라 하겠다.³¹⁾

1966년 9월 브르통(Andre Breton)의 사망으로 초현실주의 운동은 서서히 막을 내린다. 초현실주의는 20세기에 등장한 다른 운동에 비해 가장 폭 넓게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예술운동이며, 인간의 정신적 해방에 따른 보다 넓은

30) 조정운(2010), 「초현실주의를 활용한 패션엑세서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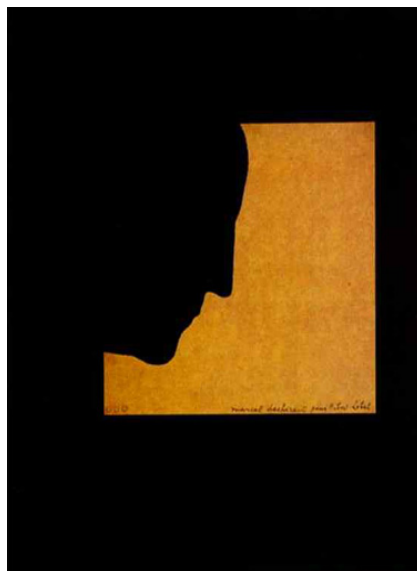
31) 최호열, 남숙희(2004), 『프랑스문화와 예술』, 청주 : 청주대학교 출판부, p.295.

예술의 세계를 개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3〉그녀의 엉덩이는 달아올랐다(1919)

출처: [http://blog.naver.com/hiydell?](http://blog.naver.com/hiydell?Redirect=Log&logNo=80066313022)
Redirect=Log&logNo=80066313022



〈그림 34〉자화상(1958)

출처: [http://blog.naver.com/donodonsu?](http://blog.naver.com/donodonsu?Redirect=Log&logNo=100006739062)
Redirect=Log&logNo=100006739062



〈그림 35〉여름철의 기분전환(1934)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http://terms.naver.com/entry.nhn?cid=3001&docId=266273&mobile&categoryId=30)
cid=3001&docId=266273&mobile&
categoryId=30



〈그림 36〉도시의 전경(1935-1936)

출처: [http://news.naver.com/main/](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065329)
read.nhn?mode=LSD&mid=sec&sid1=
102&oid=082&aid=0000065329



〈그림 37〉 신부의 의상(1926)



〈그림 38〉 행복한 눈물(1964)

출처: <http://cafe.naver.com/fzine/648>

출처: <http://cafe.naver.com/logo12/929453>

◇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91-1976)

그는 새로운 표현기법을 창안하여 그의 일생동안 환상적인 회화세계를 창조하며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비이성적이고 잠재적인 충동에 관심을 기울여 서 무의식을 의식하는 환각 이미지를 정착시킨다. 그가 재창조한 콜라주 기법은 조형성에서 입체파의 파피에 콜레(Papier Colle)와 공통점이 거의 없다. 입체파의 콜라주 요소는 조형적인 가치 안에서 채택된 선과 조형의 대응물을 찾기 위함이었으나 에른스트는 빌려온 이미지들을 우선적으로 이미지의 가치를 위해서 비합리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조합시키면서 사용하였고 조형성은 그에게 있어 2차적 관심이었다.³²⁾ 그의 특유의 콜라주 방식은 더페이즈망적 표현방법을 구사하였는데 레디-메이드(ready-made)가 가진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박탈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관념을 불러일으키도록 창안하였다. 즉, 일상적인 실체를 평면 위에 전혀 관계없이 만나게 하는 ‘실체의 위치 바꿈’을

32) 홍민경(1999), 「막스에른스트 콜라주에 의한 패턴 코디네이션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이용하여 화면위에서 강렬함과 밀도를 지닌 시적 세계를 창조하였던 것이다.

콜라주 기법에 이어 그의 미술에서 것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타주를 고안하여 괴조 로브로프가 파닥이는 괴기한 세계를 묘사하여 새로운 환상회화의 영역을 개척했다. 이것은 1941년 뉴욕의 액션페인팅의 탄생에도 큰 영향을 준다.

그는 프로타주를 통하여 고향에 대한 향수, 어린 시절의 환상과 같은 환각 이미지를 ‘꽃, 숲, 동물’ 등과 같은 기이한 형상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형식으로 제작된 그의 프로타주 화집 박물지에서는 일정한 모티브에 대한 다양한 변화로 우주론적 이미지가 전개된다. 환각 속에서 얻어진 그의 회화는 프로타주 발견 이후, 약 20년간 표현적이며 공상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며, 프로타주 외에 프로타주 기법을 유화에 적용시킨 그라타주(Grattage) 기법, 앙프랭(Empreint), 데칼코마니 등의 기법을 시도하며 자신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⑥ 신사실주의(Nouveau Realisme, 1960년-1963)

1960년에 미국에서 뉴욕을 중심으로 <그림 37> 팝아트(Pop Art)가 일어난 시기에 프랑스의 비평가 피에르레스타니(Pierre Restany)가 제창한 미술의 한 동향으로서 현실을 내 것으로 하는 기본적 행위에 입각한 유럽 작가들을 지칭하여 불렀다. 신사실주의는 1962년에 미국과 프랑스에서 이미 팝 아트를 달리 부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미술사전에 의하면 신사실주의는 너무나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추상표현주의나 미니멀리즘(Minimalism)을 추상으로 분류하는 식과 마찬가지로 신사실주의를 ‘구상’이라고 간단히 정의하는 방법 외에는 정확한 의미를 규정지을 수 없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브클라인(Yves Klein), 텅겔리(Jean Jinguely), 마르샬 레이스(Martial Raysse) 등이 신사실주의 운동의 대표 작가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사실주의가 세안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클라인의 죽음을 전후로 한 시기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사실주의 운동의 10주년이 되는 밀라노 전에서 이 전시회가 이미 전위적인 실험이 아니라 진작부터 인지되어 온 상화의 총결산으로

대중적인 성공을 얻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팝 아트의 의미로는 널리 통용되지 못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실주의(Realism)로 받아들인다. 미국의 팝아트와 같은 경향이지만 전통적인 성향을 거부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이 사실주의는 유발되는 감각이 전이 없이 현실 그 자체를 상기시킨다.³³⁾

신사실주의는 1960년의 선언에서 실재를 자각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하였으며 각 작가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다양하게 작업했다. 평면화된 공간, 거대한 캔버스, 모더니즘 회화의 단순화된 색채를 사용하는 등의 특징을 받아들였다. 이들의 결속은 현대적 자연을 제시하려는 필요에 의한 전략적인 것이었으므로 조직력이 강하지 않아 작가들 간의 의견 대립으로 곧 해산을 선언하고, 1963년에 운동으로서의 신사실주의는 막을 내렸다.

새로운 표현성과 자신이 인식한 개인적 사실의 모험을 추구하고 개념적 혹은, 상상적 표현에 연연해하지 않던 신사실주의 작가들은 이 세상을 한 폭의 그림으로 간주하며 그들이 이것으로부터 범우주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씩 장악해 나가고 있다고 여긴다.

◇ 이브클라인(Yves Klein, 1928-1962)

1958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전람회를 열어 화제를 일으키며, 청색의 모노크롬의 화면을 스스로 ‘인터내셔널 클라인즈 블루(IKB)’라 명명하여 자기만의 고유한 푸른색을 만들고, 푸른 하늘과 같은 비 물질성을 회화화했다. 푸른색은 그에게 정신적인 자유를 의미하며 ‘금박, 불, 물, 공기’ 등의 그리스 철학적 원소를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클라인의 작품에서 종종 드러나 보이는 형이상학적 시도는 누보레알리즘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직접적 현실을 대조와 형태를 통해 적용하려면 그 상대물로써 하나의 정신적 시각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며, 그 자체의 고유한 논리를 따르는 오브제의 세계를 인정하려면 실존적 고뇌가 생생하게 고개를 쳐들기 때문이다.³⁴⁾

클라인에게 있어서 예술이란 인생관이며 단순히 화실에서 붓을 든 화가를 의미하지 않았다. 만약 색채가 공간의 진정한 주인이며 공허가 저 하늘의 색

33) 제라르뒤로조이(1994), 『현대미술사전』, 윤상규 옮김, 서울 : 아르떼, p.469.

34) 다니엘아바디(1988), 『누보레알리즘』, 김정란 옮김, 서울 : 열화당, p.14.

이라면 미술가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팔레트, 붓, 화실을 버리는 쪽이 더 나을 것 이라고 생각한 그는 곤욕스런 기분으로 모델과 작업하던 중 모델과 함께 그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신의 여성에 페인트를 칠해 캔버스 위에 굴리기도 하고, 2층 집에서 뛰어내려 허공의 극장을 연출하는 등 그의 이념이나 작업은 요셉 보이스(Joseph Beuys)를 비롯하여 행위예술, 미니멀리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모델 자체가 살아있는 붓이 된 것이다. 이를 이용해 다양한 단색 그림을 그리며, 공업제품의 단편이나 폐품 등을 비롯한 여러 물체를 한데 모아 거의 그대로 전시함으로써 기계화되고 공업화되며 광고로 넘치는 현대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차용하는 집적(Accumulation) 기법 및 아상블라주(Assemblage) 기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표 1] 프랑스의 20세기 회화의 유형

구분 유형	대표작가	특 성	기 법
야수주의 (1905-1907)	앙리마티스 조르주 루오 알베로 마르케 안드레 드랭	순도 높은 원색 사용 솔직 · 대담한 표현 단순화된 굵은 필촉 고유한 색채 부정	콜라주
입체주의 (1908-1914)	파블로 피카소 조르주 브라크 후안 그리스	기하학적인 형태 대상의 해체, 다원적 전개 상징적인 이미지 사용	콜라주
파리주의 (1914-1945)	마르크샤갈 조르주 루오 샤임 수틴 모딜리아니	애수를 띤 우울한 정서 감상적, 서정적 퇴폐적 아름다움	콜라주
앵포르멜 (1940-1950)	장 포트리에 장 뒤뷔페	규격, 문법 완전히 타파 본능적, 자발적, 주관적 아르 브뤼, 서정추상, 타시즘	마티에르 아상블라주
초현실주의 (1924-1966)	살바도르달리 막스 에른스트 르네 마그리트	적극적인 표현 창조적 내적인 충동 표현 무의식의 세계	자동기술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콜라주 더페이즈망
신사실주의 (1960-1963)	이브 클라인 팅 겔리 마르샬 레이스	새로운 표현성 거대한 캔버스, 평면적 공간 개인적 사실의 모험 모더니즘 회화 단순화된 색채	아상블라주 집적

제 3 절 프랑스의 20세기 회화를 응용한 작품 사례분석

‘아방가르드’는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개념으로 확립된 이래로 회화를 중심으로 순수예술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나아가 현대 패션 및 뷰티분야에 영향을 미쳐 아방가르드의 특성을 접목한 연구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회화, 조각, 건축 등의 순수 예술이 다양한 장르와 접목됨으로써 아트메이크업에서도 다른 장르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디자인이 요구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기존에 선행된바 있는 프랑스의 20세기 회화를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사례를 비교 ·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패션 및 헤어, 네일아트에 접목시켜 연구한 선행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각도의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사례의 선정 기준은 20세기 프랑스의 회화 기법 및 회화 작품을 응용하여 판타지 메이크업으로 제작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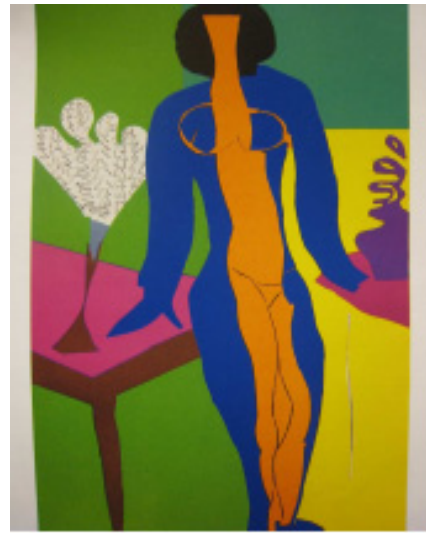
1. 아트메이크업에 적용된 사례

〈그림 43〉 아트메이크업 작품사례 1’은 야수파 작가인 앙리 마티스의 4점의 회화를 응용한 사례로서 첫 번째, 〈그림 39〉 폴리네시아 바다 (1946)의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왼쪽 데콜데에 표현하였고, 두 번째, 〈그림 40〉 질마(1905)에 채색된 색채를 얼굴부터 상반신까지 전체적으로 입혀주었다. 또한, 세 번째, 〈그림 41〉 천일야화 중 하룻밤 (1950)에 표현된 영문자와 하트 무늬를 입술과 목, 가슴 부위에 부분적으로 그려주었고, 마지막으로 〈그림 42〉 서커스(1947)의 일부 패턴을 오른쪽 데콜데 부분에 묘사하여 구성적인 아트메이크업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39〉 폴리네시아 바다(1946)

출처: <http://blog.naver.com/whitecrow11>
 Redirect=Log&logNo=80149195569



〈그림 40〉 절마(1905)

출처: [http://blog.naver.com/flastic4t?](http://blog.naver.com/flastic4t?Redirect=Log&logNo=120116243179)
 Redirect=Log&logNo=120116243179



〈그림 41〉 천일야화 중 하룻밤(1950)

출처: [http://blog.naver.com/irgendwo?](http://blog.naver.com/irgendwo?Redirect=Log&logNo=7323189)
 Redirect=Log&logNo=7323189



〈그림 42〉 서커스(1947)

출처: [http://blog.naver.com/svblue?](http://blog.naver.com/svblue?Redirect=Log&logNo=10006237401)
 Redirect=Log&logNo=10006237401



〈그림 43〉 작품사례 1³⁵⁾



〈그림 44〉 작품사례 2³⁶⁾

‘〈그림 44〉 아트메이크업 작품사례 2’는 입체파의 작가인 피카소가 창안한 파피에 콜레 기법(콜라주 기법)을 응용한 사례이다. 잡지에서 꽃모양을 오려 헤어장식으로 연출하였고, 실제 이목구비의 한 부분인 것처럼 시각적 효과를 불러 일으켜 준 입술모양 또한 잡지에서 오려 붙여 표현한 것으로 입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하였다.

‘〈그림 46〉 아트메이크업 작품사례 3’은 앵포르멜의 작가인 뒤뷔페의 〈그림 45〉 초상화(1966)를 응용하였다. 우를루프의 특징인 흰색 배경과 선적인 요소를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을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배치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47〉 아트메이크업 작품사례 4’는 초현실주의의 대표기법 더페이즈망의 조형적 특성 및 인체의 은유적 변형을 시도한 작품이다. 이마와 코는 흰색의 아쿠아 물감을 바르고 이마와 코를 제외한 얼굴 전면에는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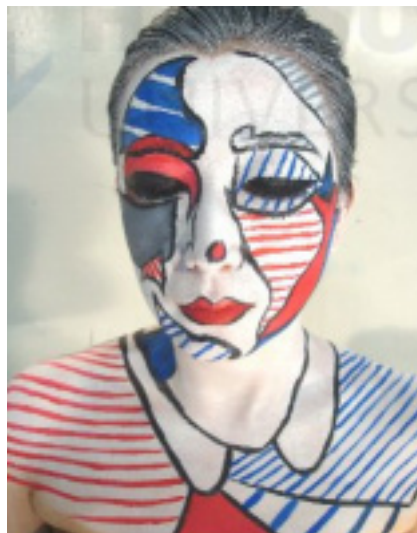
35) 김지은(2007), 「앙리 마티스 작품을 응용한 일러스트레이션과 아트메이크업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8.

36) 이규리, 전계논문, p.66

란색과 보라색을 발라 색의 대조를 이루었으며, 이마 가운데는 눈의 형상을 그려 넣고, 그 주변은 빨간색의 큐빅을 붙이는 등 평범한 인간의 모습과는 다른 생명체의 모습으로 변형시켰다.



〈그림 45〉 초상화(1966)



〈그림 46〉 작품사례 337)

출처: [http://blog.naver.com/
PostThumbnailView.nhm?blogId=h2s](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m?blogId=h2s)



〈그림 47〉 작품사례 438)

2. 패션분야에 적용된 사례

‘〈그림 49〉 작품사례 1’은 야수파의 작가, 앙리 마티스의 〈그림 48〉 음악(1939)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사례로서 색채를 추출해내어 식물의 아라베스크적인 문양을 도출해 후드 원피스를 제작하였다.



〈그림 48〉 음악(1939)



〈그림 49〉 작품사례 1³⁹⁾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156861>

‘〈그림 51〉 작품사례 2’는 파리파의 작가인 마르크 샤갈의 〈그림 50〉 하얀 십자가(1938)의 색채 및 조형 요소들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사례이다. 자켓의 앞면은 화려한 색상의 조형 요소들을 단순화하여 표현했다면, 뒷면은 조형 공간은 차분하지만, 강한 불꽃의 형태와 십자가의 형상을 어두운 색상과 주황·노란색 등으로 불안한 세계를 표현하였다.

37) 김선경(2012), 「Jean Dubuffet 작품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4.

38) 이승은, 전개논문, p.70.

39) 심미정(2009), 「앙리 마티스 회화이미지를 응용한 캐주얼 룩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7.

‘〈그림 53〉 작품사례 3’은 초현실주의 작가인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52〉 인간의 조건 I (1935)의 이미지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 사례이다. 더페이즈망 기법의 공간의 변조를 나타내기 위해 안에 입은 자켓은 하늘 이미지를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하였고, 그 위에 덧입혀진 자켓은 창문의 역할을 하며 뒤판을 넓게 컷팅하여 더페이즈망 기법인 공간의 변조를 나타낸 작품이다.

‘〈그림 54〉 작품사례 4’는 앙포르멜의 마티에르 회화를 응용한 브로치 작품 사례이다. 나무의 표면 위에 아크릴 물감과 모래를 섞어 두텁게 덧칠하여 회화적 분위기 및 선웁스, 소프트 왁스를 사용해 자연스러운 형태를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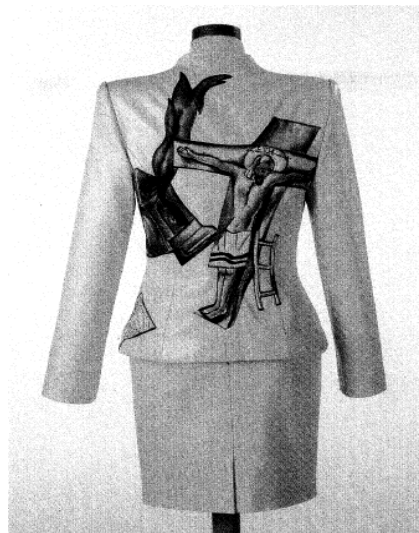
‘〈그림 55〉 작품사례 5’는 초현실주의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구두 작품 사례이다. 전위적인 모던감과 고전의 결합을 통한 왜곡, 사물과 인간과의 결합, 구두의 뒷굽과 앞굽의 해체 과정으로 이미지의 형태와 이미지 밖의 실제적 형상 사이의 모호함을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56〉 작품사례 6’은 초현실주의 작가 살바도르 달리의 회화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더페이즈망의 변형 및 변화의 기법을 응용한 목걸이 작품 사례이다. 회화적 평면 표현기법을 응용하여 금속이란 소재의 일상적 사물의 변형을 통하여 불규칙적인 형태의 표현을 중점으로 묘사하였다.

‘〈그림 57〉 작품사례 7’은 초현실주의의 더페이즈망 기법에 의한 바둑판과 바둑알의 과장과 색상을 전환한 스카프 작품 사례이다. 바둑판의 색상은 보라색으로 변화하여 현대적인 이미지로 탈바꿈하고, 흰색의 바둑알은 강렬한 빨간색으로 변화시켰다. 입술과 눈은 바둑알과 중복되어 탈일상의 미와 유희의 미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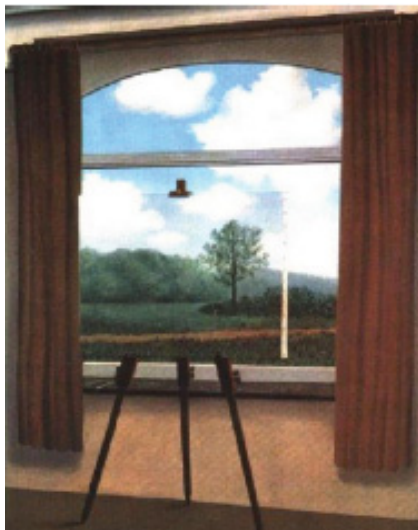


〈그림 50〉 하얀 십자가(1938)



〈그림 51〉 작품사례 240)

출처: [http://blog.naver.com/soonbokeum?](http://blog.naver.com/soonbokeum?Redirect=Log&logNo=50102796504)
Redirect=Log&logNo=50102796504



〈그림 52〉 인간의 조건 I (1935)



〈그림 53〉 작품사례 341)

출처: Rene Magritte, 1990

-
- 40) 이정희(1994), 「오브제 표현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 마르크 샤갈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9.
41) 이지연(2011), 「르네 마그리트 회화의 이미지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 더페이지 망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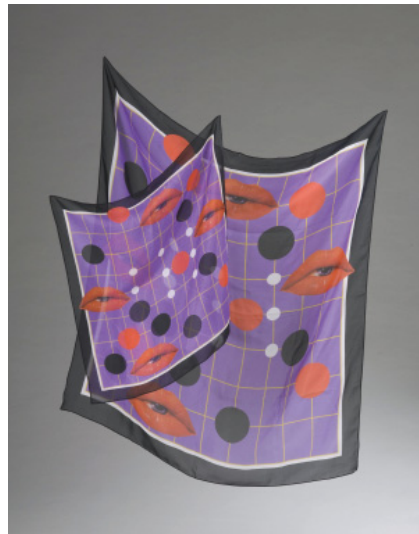
〈그림 54〉 작품사례 442)



〈그림 55〉 작품사례 543)



〈그림 56〉 작품사례 644)



〈그림 57〉 작품사례 745)

-
- 42) 황지현(2002), 「오브제와 회화적 표현의 장신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2.
- 43) 심지현(2009), 「현대 여성구두 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초현실주의 영향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1.
- 44) 손다옥(2007), 「터페이스망의 시각적 효과를 응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1.
- 45) 조정운(2010), 「초현실주의를 활용한 패션액세서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1.

‘〈그림 59〉 작품사례 8’은 초현실주의 작가인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58〉 잘못된 거울(1935)을 모티브로 하여 가방을 제작한 사례이다. 눈을 오려 문양으로 전환한 콜라주 기법과 바둑판을 이용하여 위치 이동의 복합적인 더페이즈망 기법을 응용하였다. 가방 뒷면의 무의미하게 반복된 ‘눈’은 풍자와 시각적 착시를 유도하는 유희적 감성을 표현하였다.



〈그림 58〉 잘못된 거울(1935)



〈그림 59〉 작품사례 8⁴⁶⁾

출처: [http://blog.naver.com/donalin?](http://blog.naver.com/donalin?Redirect=Log&logNo=90162895445)

Redirect=Log&logNo=90162895445

아방가르드의 특성은 의상, 밋 신발, 가방, 장신구 등의 패션분야에 접목되어 연구되고 있으며 유독 ‘의상’에서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뷰티분야에 적용된 사례

‘〈그림 61〉 작품사례 1’은 입체파의 작가인 로버트 들로네의 〈그림 60〉세 개의 창문 습작(1913)의 특징을 응용한 헤어장식 사례이다. MDF

46) 조정윤, 전개논문, p.87.

합판 및 조명, 반사판, 아크릴 판 등의 재료를 사용해 햇살에 비친 창문의 반짝거리는 형상과 여러 가지 색을 입방체에 채색하여 묘사한 1차적인 유클리드 기하학의 형태를 벗어나 큐비즘적인 시각으로 표현하였고, 햇살과 같은 미생물학적인 소재로써 최소단위인 세포를 이용하여 새로운 헤어아트를 재구성하였다.



〈그림 60〉 세 개의 창문 습작(1913)



〈그림 61〉 작품사례 147)

출처: <http://cafe.naver.com/qotthr12/35279>



〈그림 62〉 시간의 눈(1949)



〈그림 63〉 작품사례 248)

출처: <http://blog.naver.com/sunc3>

47) 홍주영(2010), 「큐비즘적 표현을 응용한 헤어조형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9.

48) 조미자(2011), 「네일아트의 조형성과 오브제 확장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6.

‘〈그림 63〉 작품사례 2’는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와 초현실주의의 작가인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 62〉 시간의 눈(1949)을 모티브로 제작한 네일아트사례이다. 어두운 색상을 이용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먼 자들의 깜깜한 암흑세계를 연출하였고,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기에 적합한 마블링 기법으로 소설 속의 군중들의 심리상태를 나타내어 시각적인 연출과 땁글의 오브제를 사용하여 시간의 눈을 부각시켰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아방가르드의 특성을 헤어 및 네일아트의 뷰티 분야에 접목한 사례는 소수에 불과했다.

제 3 장 작품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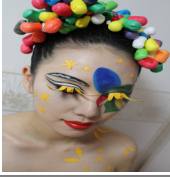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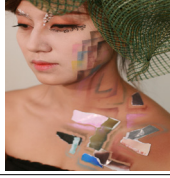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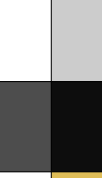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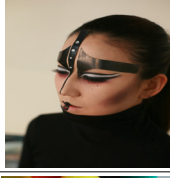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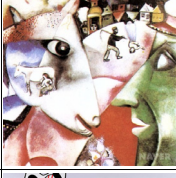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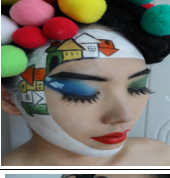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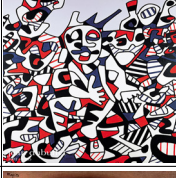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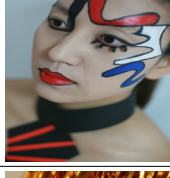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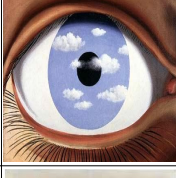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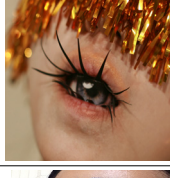
제 1 절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아트메이크업이 가진 예술적 특성에 따라 보다 창의적인 작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아방가르드의 특성을 프랑스의 20세기 회화 작품에서 분석하여 도출된 그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작해보고자 한다. 20세기 아방가르드 특성이 패션분야의 의상에 표현된 작품 사례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아트메이크업으로 표현된 선행연구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본 작품제작에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야수파, 입체파, 파리파, 앵포르멜, 초현실파, 신사실파’의 대표적인 작품에서 특성을 도출해냈다. 먼저, 색채의 해방을 슬로건으로 한 야수파의 거장인 앙리마티스의 강렬한 색채와 장식적 모티프를 응용한 작품 2점, 콜라주 기법과 기하학적인 입방체가 특징인 입체파 피카소의 작품 2점, 우울한 정서와 화려한 색감을 이용하여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파리파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작품 1점, 조형적인 규격을 타파하여 본능에 충실하여 내면세계를 표출한 앵포르멜의 장 뒤뷔페 작품 1점과 터페이즈망의 이질적인 요소의 낮익은 사물들을 이용하여 전혀 생소하게 표현한 에른스트의 초현실주의 작품 1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사실주의의 새로운 접근 방식만을 수용하여 개인적 사실의 모험을 이채롭고 독특하게 그린 클라인의 작품 1점의 특성을 응용하였다.

아트메이크업 유형 중 신체의 25%를 활용하는 판타지 메이크업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 이유는 얼굴에만 표현할 수 있는 페이스페인팅과 전신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바디페인팅 보다 헤어장식 및 데콜테 부위가 포함된 얼굴 위주의 판타지 메이크업이 본 작품을 표현하는 최적의 범위로 사려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프랑스의 20세기 회화를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하여 총 8점의 아트메이크업을 제작해 보았다.

[표 2] 작품 계획표

구분	유형	모티프	색채	재료	기법	작품
1	야수주의			MU 기본도구 펠, 큐빅, 종이 깃털, 모자	콜라주	
2	야수주의			MU 기본도구 스티로폼 색종이	콜라주	
3	입체주의			MU 기본도구 잡지 꽃 그물포장지 OHP필름	스텐실 콜라주	
4	입체주의			MU 기본도구 종이(검정) 큐빅	콜라주	
5	파리주의			MU 기본도구 종이(빨·검)	콜라주	
6	앵포르멜			MU 기본도구 아쿠아 물감 공, 숨	콜라주	
7	초현실주의			MU 기본도구 잡지, 종이 응원도구	더페이스망 콜라주	
8	신 사실주의			MU 기본도구	액션페인팅 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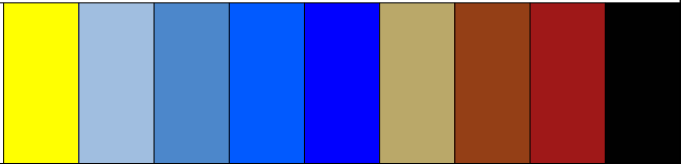
제 2 절 작품제작

1. 작품 I

[표 3] 응용 회화 I

구 분	응용 회화 I
회화유형	야수파
작가이름	앙리 마티스
모티프	 〈그림 64〉 폴리네시아 바다(1946) 출처: http://blog.naver.com/whitecrow11?Redirect=Log&logNo=80149195569
	· 톤이 다른 바다의 푸른 색상들 · 해조류 · 어류 등의 색채 · 새로운 바다의 이미지 · 종이를 오려 붙이는 콜라주 기법

[표 4] 작품내용 I

구 분	작품 I
작품기법	콜라주 기법
작품색채	
작품내용	콜라주 기법으로 제작된 『폴리네시아 바다』의 색채와 바다의 색채를 추출해 내어 바다 물결의 선적인 느낌과 바닷가의 형상을 눈 위에 표현하였다. 톤이 다른 푸른 계열의 색상으로 웨도우와 물방울을 표현하였으며 파란색 깃털로 제작한 헤어장식은 바다를 연출하였다. <그림 51>에 표현된 많은 해양생물 가운데 붉은색 속눈썹으로 산호초를 연상시켰고, 골드 빛 립 컬러와 눈썹을 따라 붙인 붉은 계열의 스팅클, 흰색 · 노란색의 큐빅 그리고 눈가에 뿌린 작은 입자의 펄은 반짝이는 금빛 모래사장을 연출하였다. 이 작품은 추상적인 부분들만을 취해서 대상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묘사하여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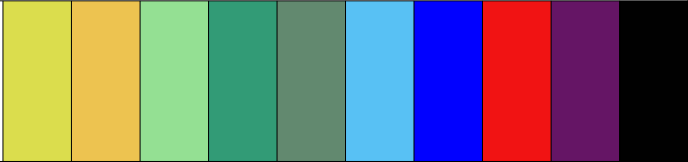
[작품 1] 꿈속의 폴리네시아

2. 작품 II

[표 5] 응용 회화 II

구 분	응용 회화 II
회화유형	야수파
작가이름	앙리 마티스
모티프	 〈그림 65〉 왕의 눈물(1952) 출처: http://cafe.naver.com/franceculture1/1635
	· 원색 · 선적인 요소 · 노란색으로 표현된 나뭇잎과 꽃의 이미지 · 장식적인 느낌 · 종이를 오려 붙이는 콜라주 기법

[표 6] 작품내용 II

구 분	작품 II
작품기법	콜라주 기법
작품색채	
작품내용	색종이를 가위로 오려서 조각처럼 만들어 형태를 평면적으로 보이게 하였고, 색채 또한 과감하게 표현하였다.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의 색상을 이용해 오른 쪽 눈 주위에 곡선 및 직선의 선적인 요소를 달리하여 색채를 표현하였다. 화려한 색상을 입힌 스티로폼을 붙여 제작한 헤어장식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속눈썹과 얼굴 주변 및 데콜테에 종이로 나뭇잎과 꽃 모양을 오려 붙임으로써 단순하면서도 장식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작품 2] 왕의 여자

3. 작품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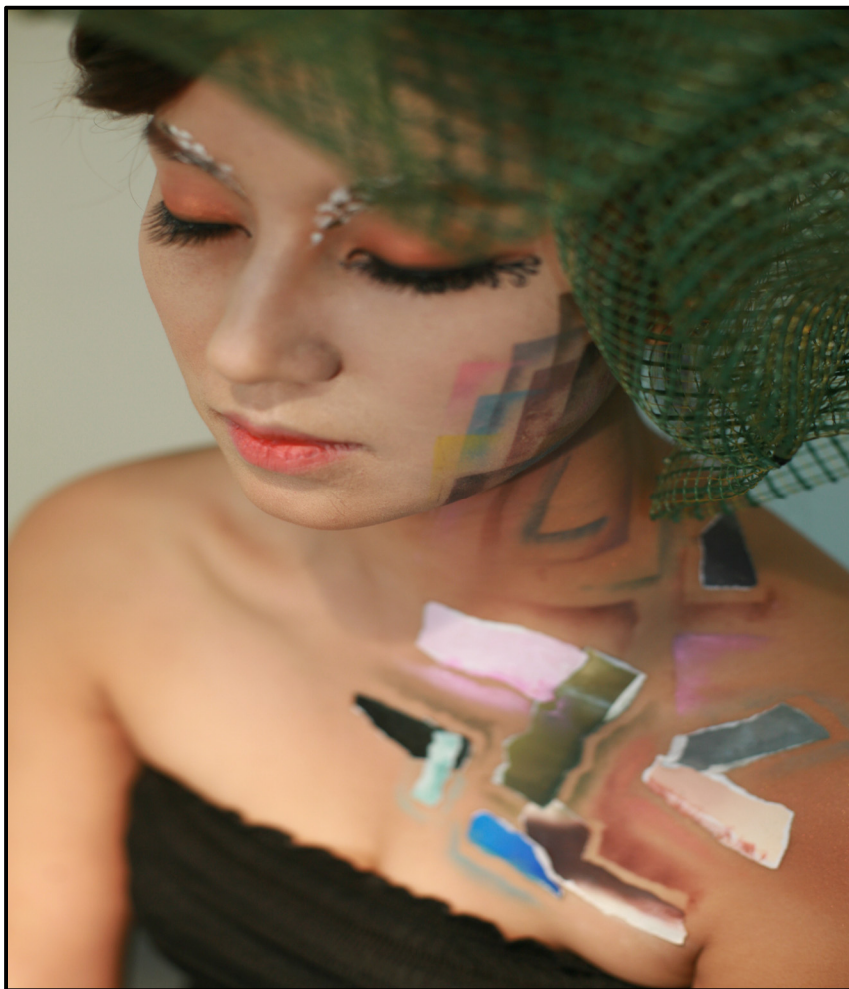
[표 7] 응용 회화 Ⅲ

구 분	응용 회화 Ⅲ
회화유형	입체파
작가이름	파블로 피카소
모티프	 〈그림 66〉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1911)⁴⁹⁾
	· 어두운 색상 · 종이를 오려 붙이는 콜라주 기법 · 기하학적인 형태 · 각이 진 면

49) 임강희(2002), 「현대일러스트레이션에 잠재된 원시성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5.

[표 8] 작품내용 Ⅲ

구 분	작품 Ⅲ
작품기법	콜라주 기법 · 스텐실 기법
작품색채	
작품내용	〈그림 53〉의 대부분이 날카롭게 각이 진 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을 색채의 명암에 따라 오른쪽 볼에서 데콜테 방향으로 다양하게 기울어진 모습을 표현하였다. 볼에서 목 까지는 스텐실 기법으로 모양을 내어 찍었고, 쇠골 아래로는 잡지책의 어두운 색상 부분만을 골라 찢어 콜라주 기법으로 붙였다. 여기서 선묘와 명암은 대부분이 일관성 있게 결합 시켰다. 헤어장식부터 눈, 눈썹, 입술은 『왕의 눈물』의 색채를 추출해내어 눈썹은 어두운 갈색을 이용해 가늘고 날카롭게 그리고 콧대 윗부분은 붓을 이용하여 흰색과 검은 색상으로 중첩되게 그렸으며 눈 아래 부분에는 어떤 선적인 기호들을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작품 3] 향

4. 작품 IV

[표 9] 응용 회화 IV

구 분	응용 회화 IV
회화유형	입체파
작가이름	파블로 피카소
모티프	 〈그림 67〉 게르니카(1937)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72&docId=258938&mobile&categoryId=1363
	· 검은색 · 흰색의 무채색 · 종이를 오려 붙이는 콜라주 기법 · 암울한 전쟁의 어두운 분위기를 응용

[표 10] 작품내용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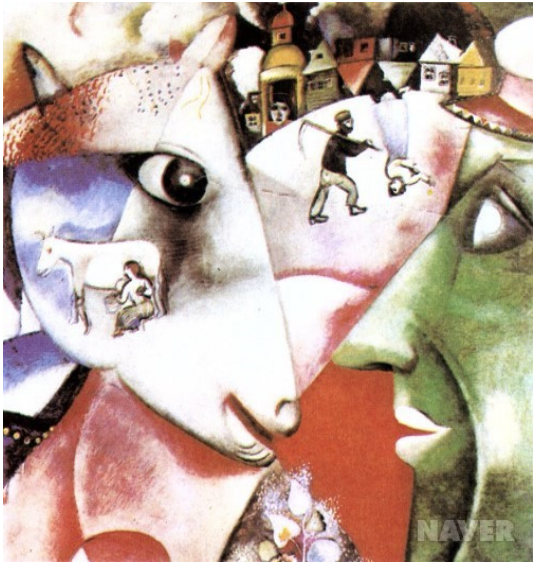
구 분	작품 IV								
작품기법	콜라주 기법								
작품색채									
작품내용	거의 흑백 톤의 컬러만을 사용하여 전쟁터의 침울하고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더욱 극대화시켰다. 이마의 넓은 면과 눈썹부터 콧대 까지 종이로 모양을 내어 오려 붙였으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빛을 내는 반짝이는 소재의 오브제인 큐빅을 검은색 종이 위에 붙여주었다. 치크와 입술은 어두운 색상을 사용해 과장되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였다. 눈 아래의 붉은 색상은 피를 흘리는 폭격 사건의 현장을 묘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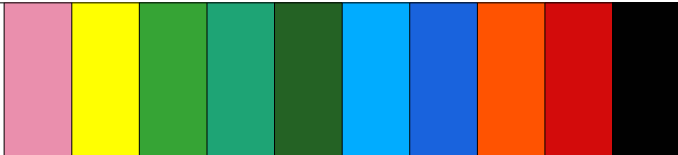
[작품 4] 무사

5. 작품 V

[표 11] 응용 회화 V

구 분	응용 회화 V
회화유형	파리파
작가이름	마르크 샤갈
모티프	 〈그림 68〉 나와 마을(1911)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001&docId=267002&mobile&categoryId=3031
	· 다양한 색채 · 콜라주 기법 · 상징적 표현 · 초현실적으로 나타난 샤갈의 어린 시절 경험적 소재

[표 12] 작품내용 V

구 분	작품 IV
작품기법	콜라주 기법
작품색채	
작품내용	〈그림 55〉의 마을의 이미지를 이마부터 귀 부근까지 그대로 그려 넣었다. 눈, 코, 입을 제외한 얼굴라인에는 흰색으로 경계를 표시하였는데 이는 고국을 하나로 엮고 있으면서도 원망하는 샤갈의 마음을 분할을 통해 표현하였다. 왼쪽과 오른쪽 눈의 쉼도우 색상을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한 면은 소를 다룬 한 면은 샤갈의 얼굴을 나타내었다. 그의 화려한 색채는 다양한 색상의 숨과 공을 이어 붙여 헤어장식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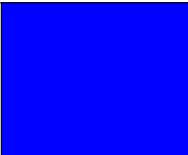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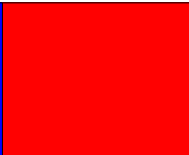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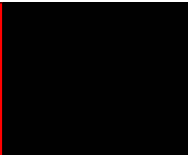
[작품 5] 꿈속의 마을풍경

6. 작품 VI

[표 13] 응용 회화 VI

구 분	응용 회화 VI
회화유형	앵포르멜
작가이름	장 뒤뷔페
모티프	 〈그림 69〉 앉아있는 남자가 있는 풍경(1974) 출처: http://blog.naver.com/dbqhgus33?Redirect=Log&logNo=33125860
	· 기본적인 4가지 색채 · 텍스트형식의 이미지 · 콜라주 기법

[표 14] 작품내용 VI

구 분	작품 VI			
작품기법	콜라주 기법			
작품색채				
작품내용	〈그림 56〉은 주변의 모든 대상과 형형색색 뒤섞인다. 빨강, 파랑, 흰색, 검정의 기본적인 색채만으로 환원된 ‘우를루프’의 세계를 응용하여 얼굴에 표현하였다. 4개의 다른 텍스트 형식을 왼쪽 눈부터 이마, 오른쪽 관자놀이, 볼로 이어서 그리고 입술까지 검은색 선을 따서 경계를 확실하게 해주었다. 오른쪽 눈 밑의 속눈썹 표현과 목을 감싸고 있는 넥타이 모양의 텍스트 형식은 종이를 오려서 콜라주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얼굴에 표현한 텍스트 형식과 마찬가지로 응용회화의 한 부분을 그대로 묘사한 것으로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작품 6] 우를루프

7. 작품 VII

[표 15] 응용 회화 VII

구 분	응용 회화 VII
회화유형	초현실주의
작가이름	막스 에른스트
모티프	 〈그림 70〉 잘못된 거울(1935) 출처: http://blog.naver.com/azy4s2zf?Redirect=Log&logNo=120127273001
	· 더페이즈망 기법 · 콜라주 기법 · 잘못된 거울에 비추는 거짓 눈의 이미지

[표 16] 작품내용 VII

구 분	작품 VII					
작품기법	더페이즈망 기법 · 콜라주 기법					
작품색채						
작품내용	더페이즈망 기법을 이용하여 모델의 입을 눈으로 둔 각 시키고 응원 할 때 쓰이는 도구를 코끝까지 덮어 머리카락처럼 표현 하여 눈을 부각시켰다. 두 가지 형태가 보이는 시각적 착시를 유발하여 입의 본래 고유성을 지키면서 눈과 하나가 되어 겹쳐놓는 방식으로 인체에 변화를 적용하여 전혀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작품에 보이는 눈은 잡지에서 오려 모델의 입 속에 넣었고 속눈썹으로 표현한 소재는 종이이며 콜라주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더페이즈망 기법의 조형적 특성에서 인체의 변형 및 시각적 착시를 적용하여 3차원 대상물을 2차원 얼굴 위로 옮겨놓는 방식으로 1차 책무는 보는 이의 육안을 속이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작품 7] 외눈박이의 사랑

8. 작품 Ⅷ

[표 17] 응용 회화 Ⅷ

구 분	응용 회화 Ⅷ
회화유형	신사실주의
작가이름	이브 클라인
모티프	 〈그림 71〉 인체계측(1960) 출처: http://blog.naver.com/waruru?Redirect=Log&logNo=20180433696
	· 청색 · 붓이 아닌 신체를 도구로 사용

[표 18] 작품내용 VIII

구 분	작품 VIII				
작품기법	액션페인팅 찍기 기법				
작품색채					
작품내용	클라인의 모노크롬 블루인 청색의 색상을 응용한 작품으로 손가락에 청색의 도란을 묻혀 손의 질감을 이마, 코 순으로 점점 톤을 낮춰 아래로 갈수록 푸른 계열이 나타나게 그라데이션 해 주었다.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였으며 오른쪽 눈 주위에는 손가락을 이용해 액션페인팅인 찍기 기법으로 손의 형상을 불규칙적으로 나타내었다.				



[작품 8] 모노크롬 블루

제 4 장 결론 및 제언

19세기 중반부터 미지의 문제와 대결하여 19세기 후반 인상파와 신인상파의 철저한 사실 표현의 전통적 방식을 거쳐 등장한 프랑스의 20세기 아방가르드 회화는 야수파를 기점으로 어떠한 제약이나 규칙에 관계없이 개인의 개성과 사상을 그들만의 표현방식으로 다양하고 독특한 작품세계를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아방가르드 예술은 회화를 중심으로 조각, 건축, 패션 및 메이크업의 많은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 현재에도 신선한 시각을 제시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아방가르드 특성을 이색적으로 표출한 다양한 회화 유형의 작품에서 도출하였다. 20세기 프랑스 회화는 ‘야수파, 입체파, 파리파, 추상파, 초현실파, 신사실파’의 운동들이 일어났다. 따라서 각각의 20세기 회화 유형 특성에 입각하여 대표적인 화가의 작품들을 분석해 보았으며, 6가지 회화 유형들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패션분야와 본 연구와 같은 계열인 뷰티분야에 제작된 사례들을 비교 ·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직접 아방가르드 적 아트메이크업을 제작하여 메이크업이 가지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아트메이크업은 패션의 흐름과 함께 성장하여 예전에는 복식사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되었으나 현재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참신한 시도와 시각으로 새로운 예술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아방가르드 메이크업은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여성들의 욕구를 채우는 메이크업의 기본 이념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요하는 새로운 장르로서 이미 활발한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야수파 · 입체파의 회화 작품에서 선보인 콜라주 기법을 응용한 [작품 1] ~ [작품 4] 에서는 깃털, 큐빅, 종이 등의 다양한 오브제를 오려 붙임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으며, 2차원적인 인체 위에 3차원의 입체적인 시각 효과를 연출 할 수 있었다. 이렇듯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간단한 소재만으로 표현 영역이 무한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둘째, 파리파 마르크 샤갈의 작품을 응용한 [작품 5]에서는 하얀 원형의 틀

과 그의 비현실적인 마을의 화려한 색상이 뒤섞여 새로운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초현실주의적인 구도는 현실 세계와의 만남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미지를 분리 및 연결시켜 감상자들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그 이상의 무궁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았다.

셋째, 장 뒤뷔페의 우를루프를 응용하여 제작한 [작품 6]에서는 4가지의 정형화된 색상들과 텍스트 형상만으로 그의 반문화적인 예술적 성향을 표현할 수 있었고, 자유로운 공간 및 새로운 형식의 표현으로 선명한 느낌의 앵포르멜적 아트메이크업이 재탄생 되었다. 또한, 형태에 대해 연구자가 가지고 있던 고정 관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에 나타난 더페이즈망 기법을 응용한 [작품 7]에서는 두 가지 형태가 보이는 시각적 착시를 유발하여 입의 본래 고유성을 지키면서 눈과 하나가 되어 겹쳐놓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더페이즈망 기법은 인체에 변화를 적용해 전혀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시키며, 기발함과 독특함을 갖춘 제 4차원적인 초현실주의 작품세계를 창조시킨다는 사실을 알았다.

다섯째, 신사실파인 이브 클라인의 작품을 응용한 [작품 8]에서는 붓이 아닌 생명력이 있는 신체의 일부분을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인 상상적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손의 질감 및 형상을 즉흥적으로 빠르고 용이하게 표현할 수 있었으며 규범적인 표현형식, 표현도구의 구속력에서 탈피해 인간 행위를 아트메이크업의 범주에 확대시키고 아트메이크업의 새로운 표현성을 제시해 주었다.

이처럼 20세기 회화 유형의 색깔이 잘 묻어난 작품을 응용하여 아트메이크업을 제작해 본 결과, 다양한 기법 및 재료의 사용으로 관념적 개념을 벗어나 사고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었으며,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표현성을 탈피함으로써 독창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아트메이크업으로 재탄생 시켜주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현재 메이크업에 관한 많은 전문 서적과 선행논문 자료들은 많이 있지만, 메이크업과 회화를 접목하여 작품제작을 목적으로 한 논문은 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파리파인 마르크 샤갈과 신사실파인 이브 클라

인의 회화는 아트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뷰티 분야 전반에 연구되어진 바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파리포 · 신사실파의 회화를 접목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추후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외의 20세기 회화 작품과 아트메이크업과의 연관성에 관한 아방가르드 예술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본 연구보다 이색적이고 기발한 디자인의 아트메이크업 제작과 연구가 이루어지길 고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공용(1991), 『Airbrush Illustrations』, 서울 : 조형사
- 김영희 외(2001), 『토틸메이크업』, 서울 : 정문각
- 노버트 린튼(1993), 『20세기의 미술』, 윤난지 옮김, 서울 : 예경
- 닐 콕스(2003), 『입체주의』, 천수원 옮김, 파주 : 한길아트
- 다니엘 아바디(1988), 『누보레알리즘』, 김정란 옮김, 서울 : 열화당
- 데이비드 코팅턴(2003), 『큐비즘』, 전경희 옮김, 파주 : 열화당
- 레나토포지올리(1999), 『아방가르드 예술론』, 박상진 옮김, 서울 : 문예출판사
- 로베르 르네(1990), 『초현실주의 I』, 김정란 옮김, 서울 : 열화당
- 로즈메리람버트(1986), 『20세기 미술사』, 이석우 옮김, 서울 : 열화당
- 멜구딩(2003), 『추상미술』, 정무정 옮김, 파주 : 열화당
- 박보영 외(2002), 『Make-up Art』, 서울 : 청구문화사
- 박찬국 외(1995),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서울 : 재원
- 변종하(1972), 『샤갈, 서양미술전집22』, 서울 : 한국일보사
- 사라 휘트필드(1990), 『야수파』, 이대일, 서울 : 열화당
- 수지 개블릭(2000), 『Rene Magritte』, 천수원 옮김, 서울 : 시공사
- 안연희(1999), 『현대미술 사전』, 서울 : 미진사
- 오인영 외(2010),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서울 : 훈민사
- 월간미술편(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 중앙일보사
- 이영욱(1993),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서울 : 시각과 언어
- 이은주(2008), 『프랑스 문학과 미술』, 서울 : 만남
- 이일(1976), 『CHAGALL, 세계미술문고47』, 서울 : 금성출판사
- 인고 발터, 라이너 메츠거(2005), 『마르크 샤갈』, 최성욱 옮김, 서울 : 마로니에북스
- 인고발터(2005), 『파블로 피카소』, 정재곤 옮김, 서울 : 마로니에북스
- 임두빈(1988), 『아방가르드 예술의 정신사적 배경과 의미, 현대미술의 전개

와 비평』, 서울 : 미진사

임석진 외(2009), 『철학사전』, 서울 : 중원문화

장 뒤뷔페(2003), 『아웃사이더 아트』, 장윤선 옮김, 서울 : 다빈치

장혜선(1992), 『Fashion Illustration』, 서울 : 교학연구사

제라르듀로조이(1994), 『현대미술사전』, 윤상규 옮김, 서울 : 아르떼

존 골딩(1988), 『큐비즘』, 황지우 옮김, 서울 : 열화당

진중권(2011),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서울 : 휴머니스트

진현용, 최성민(2002), 『The Body Art Vol』, 서울 : 도도컴편집주

진휘연(2002), 『아방가르드란 무엇인가』, 서울 : 민음사

찰스 해리슨(1988), 『추상표현주의』, 이영철 옮김, 서울 : 열화당

천지연 외(2001), 『Face in makeup』, 서울 : 청구문화사

최민(1978), 『현대미술용어사전』, 서울 : 열화당

최호열, 남숙희(2004), 『프랑스문화와 예술』, 청주 : 청주대학교 출판부

편찬위원회(1989), 『미술대사전』, 서울 : 한국사전연구사

폴크마 에서스(2006), 『앙리 마티스』, 김병화 옮김, 서울 : 마로니에북스

피오나 브래들리(2003), 『초현실주의』, 김금미 옮김, 파주 : 열화당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 국학자료원

한국미용학회(2003), 『미용학사전』, 서울 : 신광출판사

H. H. 에너슨(1990), 『현대미술의 역사』, 이영철 외 옮김, 서울 : 미술공론사

2. 학위논문

강현신(2011), 「아트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 피카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영은(2012), 「해체주의적 접근을 통한 아트 메이크업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공영희(2007), 「구스타프 클림트의 회화 작품을 응용한 바디 아트에 관한 연

- 구 : 바디 페인팅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경(2012), 「Jean Dubuffet 작품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아(2010), 「21세기 패션 스타일링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표현기법」,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경(1995), 「이집트 장식문양을 응용한 현대 아트메이크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2003),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열(1981), 「에콜 드 파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석(1995), 「Neo-Dadaism의 조형적 특질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2007), 「앙리 마티스 작품을 이용한 일러스트레이션과 아트메이크업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은선(2009), 「아트메이크업의 表現技法研究 : 表現方法 및 使用材料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운영(2006), 「장 뒤뷔페의 앵포르멜 충돌의 표현적 측면과 해석적 측면 : 기초유물론과 이중학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맹월(2011), 「Lace를 이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조형성」,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주리(2007), 「현대패션에 표현된 트랜스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다옥(2007), 「더페이즈망의 시각적 효과를 응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아리(2005), 「장 뒤뷔페의 반문화적 작품특성 연구 : 아방가르드 예술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원선(2012), 「아트메이크업 교육을 위한 MIS 디자인 발상 프로세스」,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미정(2009), 「앙리 마티스 회화 이미지를 응용한 캐주얼 룩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지현(2009), 「현대 여성구두 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초현실주의 영향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기옥(2010), 「초현실주의 헤어와 헤드 드레스 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수연(2005), 「피카소의 작품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 꿈의분석시대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2007),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 : 2001년 ~2005년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리(2012), 「입체주의적 폴라쥬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 파피에 폴레 기법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현(2010), 「로맨틱 아방가르드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 영국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은(2012), 「더페이스망 기법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형(2004),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바디페인팅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1994), 「오브제 표현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 마르크 샤갈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11), 「르네마그리트 회화의 이미지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 더 페이스망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진(2012), 「기하학적 전통문양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강희(2002), 「현대일러스트레이션에 잠재된 원시성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숙(1999),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후반 컷워크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은경(2001), 「오브제의 조형적 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운선(2001), 「행위미술의 특성에 관한 연구 : 1960년대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자(2011), 「네일아트와 조형성과 오브제 확장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정윤(2010), 「초현실주의를 활용한 패션액세서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혜숙(2010), 「프랑스·영국·일본의 아방가르드 패션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보혜(2009), 「앙리마티스 회화의 장식적 모티프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예운(2006), 「마르크샤갈의 작품에 나타난 상상력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민경(1999), 「막스에른스트 콜라주에 의한 패턴 코디네이션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주영(2010), 「큐비즘적 표현을 응용한 헤어조형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지현(2002), 「오브제와 회화적 표현의 장신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학술지

- 김미림, 최희자(2011), 「UV라이팅에 나타난 바디페인팅 시각적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2, pp.268-275.
- 이승은, 최희자(2011), 「초현실주의 데페이즈망 기법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지』, Vol.12. No.3, pp.385-395.

4. 인터넷 자료

<http://www.ohgizmo.com>
<http://www.paintedalive.com>
<http://hooniya.tistory.com/15>
<http://cafe.naver.com/fzine/648>
<http://arts.search.naver.com/service>
<http://cafe.naver.com/ujbbeautyac/76>
<http://cafe.naver.com/logo12/929453>
<http://cafe.naver.com/greenlove71/506>
<http://cafe.naver.com/bestbeautyart/1580>
<http://cafe.naver.com/yonginmbeauty/551>
<http://cafe.naver.com/franceculture1/1635>
<http://cafe.naver.com/dodoacademycafe/1439>
<http://cafe.naver.com/dodoacademycafe/1428>
http://www.kmaa.or.kr/new/04_gallery/read.php?field=&wo
<http://blog.naver.com/sy992?Redirect=Log&logNo=80144513530>
<http://blog.naver.com/hoilhm?Redirect=Log&logNo=40132446615>
<http://blog.naver.com/hiydell?Redirect=Log&logNo=80066313022>
<http://blog.naver.com/jwanna?Redirect=Log&logNo=10093071270>
<http://blog.naver.com/killr21?Redirect=Log&logNo=100038267776>
<http://blog.naver.com/msp21c?Redirect=Log&logNo=150050419516>
<http://blog.naver.com/arcadium?Redirect=Log&logNo=80126766484>
<http://blog.naver.com/dodosuna?Redirect=Log&logNo=30162239399>
<http://blog.naver.com/aurabusan?Redirect=Log&logNo=20174469710>
<http://blog.naver.com/azy4s2zf?Redirect=Log&logNo=120127273001>
<http://blog.naver.com/yj651215?Redirect=Log&logNo=140114090701>
<http://blog.naver.com/donodonsu?Redirect=Log&logNo=100006739062>
<http://blog.naver.com/h3133712?Redirect=Log&logNo=130075943926>

http://blog.naver.com/kor_kimpo?Redirect=Log&logNo=110115709027
<http://blog.naver.com/bluehour64?Redirect=Log&logNo=100025415945>
<http://blog.naver.com/waruru?Redirect=Log&logNo=20180433696>
<http://blog.naver.com/whitecrow11?Redirect=Log&logNo=80149195569>
<http://boingboing.net/2013/03/15/remarkable-face-painting-from.html>
<http://blog.naver.com/sfxkorea2008?Redirect=Log&logNo=40143178592>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72&docId=258938&mobile&categoryId=1363>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001&docId=267002&mobile&categoryId=3031>
<http://cafe.daum.net/AHN0123/9ylA/1173?docid=14XIE|9ylA|1173|20110831144037>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389&docId=264314&mobile&categoryId=1389>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70&docId=260234&mobile&categoryId=170>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001&docId=266273&mobile&categoryId=30>
[naver?where=arts_list&query=%EC%B9%B8%EB%94%98%EC%8A%A4%ED%82%A4&ie=utf8&start=1](http://naver.com?where=arts_list&query=%EC%B9%B8%EB%94%98%EC%8A%A4%ED%82%A4&ie=utf8&start=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065329>

ABSTRACT

A Study on Art Make-up Works applying the characteristics of avant-garde in France

– Focused on paintings of the twentieth century –

Lee, Ji Young

Major in Make-up Art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Based on constant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the internet, materialism and growth of dot-com enterprise is in twenty first century modern society. Therefore, unconventional way of expression became acceptable in overall culture. It improves the modern beauty standard, respecting every person's individuality. Besides, it affects field of makeup, so that creates new genre, referred to as "Art makeup", which pursues creativity. As a part of formative art, it appeals the idea with materials and mediums, and is regarded as visual art, satisfying human instinctive desire of beauty, and creating new image. As mass media which has been affecting public art develop rapidly, materials for art makeup became various and the mediums became specialized. Like this, various medium must always be studied and developed to satisfy modern people's desire of beauty who are living in modern society. progressing

rapidly.

Avant-garde implies that 'subconscious desire', 'the unknown world', 'conflict, starting to reveal', and 'hidden idea within moderns'. It reflects the culture of the time, turning from the tradition, and has to challenge to new idea. In this context, it must be said that avant-garde and art makeup is in common.

Therefore, in this study, it analyzes the figure of avant-garde, focusing on twentieth century paintings, which turns from traditional style and various mediums and creativity were acceptable without any limitation and formality, and then produce art makeup based on it. In this way, it gives new impression of art makeup and make the mediums be various, so that attempt to enlarge the field of art makeup. It mentions to three distinctive patterns and characters of art makeup and five mediums. Also it considers art makeup, relating to six notable movements in twentieth century painting, such as fauvism, cubism, prismaticism, abstract art, surrealism, specially in French painting. Besides, it presents total eight original art makeup applied various mediums and feature in avant-garde from analysis works representing the six movements in twentieth century art.

The study, got through consideration of theory and production of works, runs as follows.

First, art makeup, applying fauvism and cubism by making collage, gave new implication by put various objects on two dimensional human body, and three dimensional visual effect. In this way, it is able to express infinitely with simple daily objects.

Second, another style of art makeup, applying unrealistic images in works of Marc Chagall, representing prismaticism, based on his experiences and religion, presents new image mixed with the village in his childhood. When surrealistic imagination encounters realistic world, it evokes subjective imagination by separating and connecting the images.

Third, art makeup, applying Jean Duffet's unforgettable work *L'hourloupe*, shows his countercultural inclination for art, only with four fixed colors and forms. It allows to produce vivid, informel art makeup with liberal space and anew form. Besides, stereotypes that the researcher had had about the form was gone.

Fourth art makeup style, applying *depaysement*, presented in Rene Magritte's work, attempt to lead an optical illusion. Eyes harmonizes with lips, maintaining the peculiarity of lips, and in this way, both images are overlapped. The medium, *depaysement*, creates totally different design by making variation on human body, and creates four dimensional surrealism works with something original and peculiar.

Fifth is applying neorealism artist, Yves Klein's work. It turns away general expression of imagination, then presents texture and form improvisatorially. That is because it uses a part of body as a kind of makeup tool. It suggests new way of expression and makes even people's action be included in the field of art makeup.

In this manner, production of art makeup applying the works, presenting the type of twentieth century painting, makes possible to express creativity by escaping from conceptual idea, and extending thoughts. Moreover, it extends chances to present the idea by using various mediums, materials, and tools, and then improves in art makeup with brandnew design.

Accordingly, this study would be expected to help later researchers to create art makeup with brandnew design, applying various ways and mediums with other paintings, not mentioned above.

【Key words】 Art makeup, Fauvism, Cubism, Parisianism, Informel, Surrealism, Neorealism, Collage, *Depaysement*, Unrealistic images, Texture and form by hand, Brandnew design